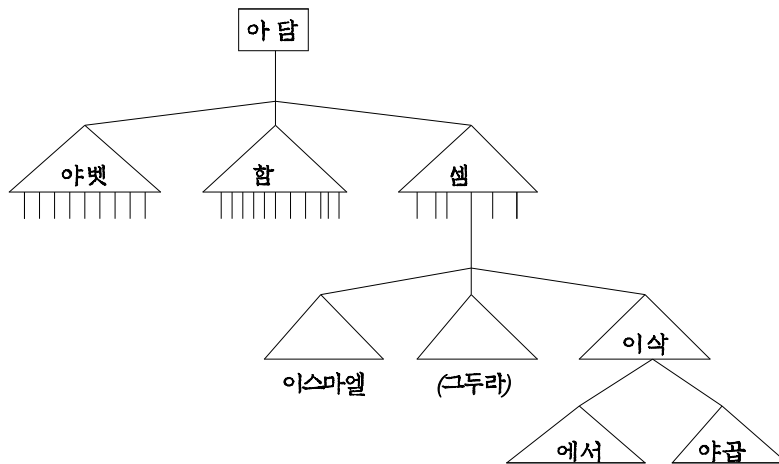


역대상 1 장

1. 기도할 때 교회 이름만 나열해도 될까? 효자제일교회, 잠실중앙교회, 소금과 빛교회, 포항대흥교회...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괜찮다면 왜 괜찮을지 생각해 보고 역대기의 족보가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람 이름만 나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자.

내용을 잘 아는 사이에는 이름만 나열해도 된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기 때문이다. 역대기 저자는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하게 돌아보는 것이다. 잘 알기에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것이다. 역사를 간단하게 요약, 정돈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다. 본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민족과 신앙의 중심을 잡으려는 의도로 기록된 것이다. 그 중심이 바로 조상들이다(창 5:3-32, 10:2-29, 25:1-16의 요약) 사람이 역사다. 역사에서 사람이 빠지면 그 역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태정태세문단세... =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아브라함...

2. 따분하게 보이는 족보도 뭔가 특징을 발견하면 읽기가 수월할 수 있다. 이 족보가 단순하게 조상으로부터 후손에 이르는 직선과 같은 나열이 아니다. 어떤 형태인지 도표 형식으로 그려보자.



아담으로부터 10대 손 노아까지 일직선으로 내려와서 노아의 후손을 자세히 소개하고 다시 셈의 후손에서 10대손 아브라함까지 달렸다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자세히 설명한다. 아담이 깨뜨린 처음 계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갱신하려고 하신다. (그리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간다. 그러므로 이 계보는 “이 사람에 관하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는 말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조상이 달이나, 알, 풀, 흙에서 나왔다고 하는 다른 민족들의 실화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이다.)

3. 인류의 조상은 아담이다. 오늘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시조는 아담 대신에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 중시조라고 할 수 있는 조상이 있을까?

노아와 아브라함: 본문의 기록형태를 보면 두 종류의 조상이 있었다고 하는 셈이다(4, 27).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노아가 정답일 것이다. 아브라함은 오늘날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영적인 관점에서는 아브라함이 중시조다. 흥미롭게도 본문은 아담에게서 출발해서 달려가다가 노아와 아브라함에게서 잠시 멈추어 서서 이들의 후손이 번창하고 있음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다.

조상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을 아는 일이기도 하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 바벨론의 포로생활 중에서 낙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민들에게 역대기는 모든 인류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그 역사의 중심인물은 아브라함에게로 연결된다는 역사의식을 심어준다.

4. 일반적으로 셈, 함, 야벳이라고 부른다. 아마 나이순일 것이다. 그런데 후손을 소개하는 본문(5-17)은 역순이다. 그러고 보니 아브라함의 후손(이스마엘, 그두라의 아들들, 이삭)이나 이삭의 후손(에서, 이스라엘=2장)을 소개할 때도 그렇다. 왜 역순으로 소개할까?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한 길가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지나가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형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만이 영원히 살아남는다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창 4장의 화려한 가인의 족보는 아예 언급도 하지 않는다.

5. 장자권을 이어받지 못한 자들은 버려진 셈인가?

족보를 보면 크게 번성하고 있다. 함이나 야벳은 물론 이스마엘, 그두라의 6아들, 에서의 후손이 세속적인 복은 더 행했을 수도 있다. 영적인 복이 다른 계통을 따라 갔을 뿐이다. 세속의 복을 받은 이들이 영적인 복을 받은 셈, 이삭의 품을 떠나지 말아야 했다.

6. 야벳의 자손 중에 알만한 이름 있는가?

별로 없다: 메섹(다메섹?), 다시스, 잇딤 정도? 이들은 서방(유럽) 세계의 섬들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노

아의 예언대로(창 9:27) 크게 번성하여 인도-유럽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창 10:5) 이스라엘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기에 기록도 단순하다.

7. 함의 자손 중에 알만한 이름이 있는가?

제법 많다: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니므롯, 블레셋,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신, 하맛: 함의 자손들은 아프리카와 그쪽 방향에 있는 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옮겨간 자들이다(기준은 시날 평지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은 아마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한 자였을 것이다. 이들의 이름이 익숙한 것은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애굽인들이 나온 미스라임과, 가나안 족속들이 나온 가나안은 둘 다 유대인의 이야기에서는 커다란 관심을 끄는 이름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조상들과 애굽 땅에서 나오기 위해 싸웠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싸움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스라임의 지파들(11, 12)과 가나안의 지파들(13-16)은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고대에는 크게 번성하였으나(애굽, 이디오피아) 점차 미약해졌다(창 9:25).

8. 야벳과 함의 자손을 소개하는 방식과 셈의 후손을 소개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셈의 후손은 자손별로 소개하지 않는다. 야벳과 함은 수평으로 나누어 다시 수직으로 소개한다면 셈의 후손은 수직으로만 소개한다. 아마도 비교적 잘 알기 때문일 것이다: 엘람(오늘날의 이란, 바사인), 앗수르(앗수르인), 아르박삿(갈대아인, 바벨론), 룻(리다아인의 조상), 아람(수리아인), 우스(움의 조상?) 등의 이름은 별도로 소개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이다.

9.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 셈에서 아브라함까지 10대의 이름은 낯설지 않아야 정상이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이 이름들이 낯설다면 성경에 익숙하지 않다는 뜻이다.

10. 결국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은 전부 몇 명인가?

8명: 문제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였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런 셈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다. 다른 아들들도 아브라함에게 재산을 나눠받았고 번성했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복은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전해진다. 다른 아들들도 이 복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11. 아브라함의 자손도 결가지를 먼저 설명한다. 이스마엘은 아들이 몇 명인가? 굳이 아들만이라도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가 있을까?

12명,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성취이기 때문이다(창 17:20).

12. 그두라의 소생 중에서는 미디안의 후손만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스라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모세가 망명갔던 곳, 후에는 적대적인 관계가 된다(민 25:18, 사 6:1).

13. 아브라함, 사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다. 이삭은 왜 새로운 이름을 주시지 않았을까?

삶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순종의 사람이었다. 다른 분들은 변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14. 이스라엘보다 먼저 에돔의 왕들이 등장한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버려진 에돔보다 못해보인다. 짧게 보면 그렇게 보인다. 에돔의 왕이 우리가 아는 왕정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세습이 아니었다: 선출제였는지 지명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습보다 더 발전한 걸까? 아니면 왕권이 약한 탓이었을까? 이렇게 왕을 중심으로 번성한 것도 결국은 허무하게 죽은 부자의 모습(눅 12:20)과 비슷하다.

역대상 2 장

1. 여기서 12 아들은 무슨 순서로 기록되었는가? 출생순? 어머니순?

무순: 요셉과 베냐민의 위치만 뒤로 옮기면 어머니순이다(그 안에서는 나이순). 잇사갈과 스불론은 레아의 소생이지만 출생순으로 하면 아셀보다 늦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은 레아의 소생이고, 단과 납달리는 빌하의 소생, 갓과 아셀은 실바의 소생이다. 이스라엘의 시작과 교회의 시작은 12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짧은 점이 있네!

2.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소개하는데 아주 상세하다. 그렇다면 에서의 기록은 자세한 것이 아닌 셈이다. 유다 지파의 기록이 어디까지일까? 그 다음엔 누구를 소개하는가?

2:3-4:23까지: 엄청나게 길다. 그 다음엔 시므온인데(4:24-43) 그 뒤를 이어 8:40까지 12아들이 다 나온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경우에는 장자의 복을 받은 아들은 한 명이었고 다른 아들은 떠났다. 반면에 야곱의 12아들은 모두가 구원의 반열에 포함되었다. 삼대에 걸친 신앙적 결단과 훈련이 있는 후에 믿음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다. 이 약속의 나라는 야곱의 이름 곧 이스라엘로 불린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도 일정한 훈련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3. 12아들 중에서 왜 유다지파를 제일 먼저 소개할까? 그것도 너무 너무 자세하게? 알만한 이름을 찾아 보라,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있기 때문인가?

다윗(15): 장자 우선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 즉 다윗의 가계가 우선이다. 역대기의 기록 의도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다윗 언약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에 누가 우선일까? 나이, 먼저 믿은 순서? 무슨 일에 어떻게 충성하느냐가 중요한 기준일 수 있다. 믿음의 계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로 이어진다. 창세기를 읽을 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일 것 같은데 역대기에서는 유다(다윗 왕조)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 왕조의 회복을 통해서 계승되고 있음을 확인하게 밝히려는 것이다.

4. 유다의 아들이 다섯인데(3-4) 그 중에 후손 없이 죽은 자는 에르(엘)와 오난이다. 그렇다면 다른 세 아들의 후손을 설명해야 하는데 누구의 후손만 소개하는가?

베레스(5): 세라에 대해서는 아들과 후손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지나간다(6-8). 시므리는 세라의 아들이 틀림없지만 나머지 네 사람은 먼 후손이다(왕상 4:31). 셀라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다. 베레스는 쌍둥이 동생인데 그가 장자권을 이어받은 특별한 이유도 없다. 하나님의 선택일 뿐이다.

5. 일반적으로 알려진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7)는 누구인가(수 7:1)?

아간: 그렇다면 7절의 아갈이 아간이다. 아간은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이다. 세라의 아들에 삽디가 있어야 하는데? 6절의 시므리가 삽디라야 한다. 그러면 7절에 '시므리의 아들 갈미, 혹은 삽디의 아들 갈미'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셈이다. 잘 알기에 뻔 걸까? 아간 덕분에?

6. 유다 지파의 후손들 중에서는 헤스론의 계보가 아주 자세하다. 헤스론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했는지 구분해 보자.

람의 자손들(9-17), 갈렘의 자손들(18-20, 42-55), 스굽의 자손들(21-23), 아스홀(24), 여라므엘의 자손들(25-41): 말이인 여라므엘을 제치고 람의 자손들이 먼저 소개되는 것도 다윗 때문이다.

7. 유다 지파의 계보는 베레스, 헤스론, 람으로 이어진다. 람의 계보는 어디까지인가?

17절까지: 헤스론, 람, 압미나답, 나손, 살마(살몬), 보아스, 오벧, 이새, 다윗(스루야, 아비가일) 애굽 이주에서 출애굽까지 430년, 출애굽에서 다윗까지 약 400년이 흐른 것을 감안하면 이 족보는 잘 알려진 사람들만 간략하게 발췌한 기록인 셈이다.

8. 다윗의 기록에서 특별히 자매를 언급하는 이유가 있을까?

이 자매들이 낳은 아비새, 요압, 아사헬(스루야의 아들들), 아마사(압살롬의 군장, 다윗에게 발탁되었다가 요압에게 암살당함)는 큰 용사가 되어 다윗을 도왔기 때문이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들은 7명인데 삼상 16:8-11에 보면 8명이다. 한 명은 일찍 죽은 모양이다.

9. 18절에서 헤스론의 다른 아들 갈렘의 계보를 소개하는데 9절에는 갈렘이란 사람이 없는데?

글루베가 갈렘이다. 발음이 조금 비슷한가? 우리말로로는 전혀 달라 보이지만 모음을 표시하지 않는 히브리어로는 같은 말의 변형이다. 여호수아를 도왔던 여분배의 아들 갈렘과 다른 사람이다.

10. 다윗의 계보를 말하려고 한다면 갈렘의 계보는 결가지가 아닌가?

홀과 브살렘(19) 때문이다: 홀은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왔고(출 17:10-12), 브살렘은 성막 건축을 감독했다(출 31:2-5).

11. 헤스론이 나중에 다시 장가를 갔다. 그래서 스굽을 낳았다. 야일이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한다. 무슨 일을 한 사람인가?

모게인 므낫세가 차지한 길르앗 땅에서 맹활약을 해서 아르굽 온 지방을 정복하고 하봇야일이라고 불렀다(신 3:14, 민 32:41). 처남과 매부가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정복하였다. 후대에 그솔과 아람에게 빼앗겼던 모양이다.

12. 또 헤스론이 등장하네(24)! 느닷없이 아스홀을 소개하고 지나간다. 이 사람은 드고아의 아버지란다. 드고아는 인명일까, 지명일까?

둘 다: 드고아의 아버지이면서 그 성읍을 세우거나 유력한 자가 되었다는 뜻이다(42, 45 참고). 그러니까 아스홀은 드고아 주민의 조상이 된 사람이다.

13. 여라므엘은 헤스론의 장자다. 그런데 가장 늦게 소개되는 이유가 뭘까?

특출한 인물이 없네! 원래 유명한 사람 한 두 명이 가문을 빛내는 법이다. 불행하게도 여라므엘의 후손 중에 그런 인물이 없다. 대신 가장 불행하게 여겨진, 아들 없이 죽은 사람의 기록만 있다(30, 32, 34). 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여라므엘은 종종 이방족인 겐 사람과 함께 등장한다(삼상 27:10, 30:29). 아마도 이방 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혼합이 된 탓 아닐까? 이것이 말이이면서도 가장 미약한 가문이 된 주요인일 것이다.

14. 세산의 아들은 알래라고 하고선(31), 아들이 없고 딸 뿐이라(34)는 겐 무슨 말일까?

딸이 아들 역할(양속녀)을 했다는 말: 이 딸이 종과 결혼하여 가문을 이어갔다. 여라므엘의 실제 자손 이야기는 33절에서 끝이 나고 34-41은 딸의 후손으로 덧붙여진 내용이다. 더 이상 성경에서 여라므엘의 후손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

15. 갈렘의 후손은 위에서(18-20) 간략하게 설명했는데 다시 설명을 시작한다.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증거다. 누가 유명했을까?

메사(42), 라합(44), 마온(45), 소발(50), 살마, 하렘(51) 메사는 십의 아버지였는데 메사의 아들에 십이 없다. 십은 인명이 아니라 지명이다(다윗이 도망 다니던 십 황무지 근처의 마을이다). 그러니까 메사는 십이라는 마을의 창건자라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라합은 요르그암을, 마온은 벤술을, 소발은 기랴여아림을, 살마는 베들레헬을, 하렘은 벤가델을 세웠다. 그 외에도 여러 종족이 나왔다(53-55, 이텔 종족, 붓 종족, 수맛 종족, 미스라 종족, 소라 종족, 에스다울 종족, 느도바 종족, 마나합 종족의 절반, 소라 종족, 디랏 종족, 시므앗 종족, 수갓 종족, 레갑 가문). 이들의 왕성한 활동이 훗날 유다지파의 다윗이 왕으로 세워 지도록 뒷받침하게 된다.

유명한 청담꾼 갈렘은 4장에 가서 나온다(4:15). 그러면 웃니엘과 결혼한 갈렘의 딸 악사(수 15:16, 삿 1:12)도 여기 갈렘의 딸 악사와는 다른 사람이다.

16. 베들레헬의 아버지 살마와 기랴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후손 중에서 많은 종족이 나왔다(51-55). 이 중에 가장 유명한 종족은 어느 종족일까?

레갑 가문: 레갑의 아들 요나단(왕하 10:15)이 세운 가문을 철저히 지킴으로 예레미야에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다(렘 35:6-19). 겐 종족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속했던 이방 족속이었는데 아마도 갈렘 족속에 병합된 모양이다.

역대상 3 장

1. 2장에서 야곱의 아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시작했는데 3장에서는 다윗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다. 야곱의 아들과 다윗은 어떤 관계인가?

다윗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다. 그러니 여전히 유다 지파를 소개하고 있는 셈이다.

2. 다윗 왕의 통치시기를 둘로 구분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능할까?

헤브론 시대와 예루살렘 시대: 헤브론 시대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고(7년 반), 예루살렘 시대는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시절이다(33년).

3. 제일 허무하게 죽은 아들은?

다말을 압는: 다말을 범한 일로 다말의 오라비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다(삼하 13:14, 28-29). 그릇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한 탓에 왕세자의 지위는 물론이고 목숨까지 잃어버렸다.

4. 제대로 인물 값(?)을 한 아들은?

압살롬: 이스라엘 최고의 인물이었지만(삼하 14:25-26) 아버지에게 반역했다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이방의 공주였던 어머니에게서 좋지 못한 이방 왕의 행위를 배운 탓일 것이다.

5. 가장 안타까운 아들은 다니엘이다. 삼하 3:3에는 길르압으로 나오는데 분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일찍 죽은 것 같다. 그런데 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까? 아비가일이 다윗과 결혼하게 된 과정을 참고해 보라(삼상 25:25-31).

아비가일이 너무나 지혜로운 신앙을 지닌 인물이었다. 이런 지혜와 신앙으로 위대한 자녀를 길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 안타까움이 든다. 어머니의 지혜보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때문에(삼하 13:22-25) 결국은 솔로몬이 복을 받았다. (아비가일의 지혜로 일찌감치 정치에서 멀리 떨어져 둘째 아들은 왕자의 난에서 빠져났다고 하는 설도 있다)

6. 3절에 '다윗의 아내 에글라'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면 그 앞에 언급한 부인들은 정실부인이 아닌 말인가?

에글라란 정실부인이란 뜻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에 대한 소개를 여기서 끝맺는다는 뜻이다. 다른 본문에서 다윗의 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다(삼상 25:42-43, 삼하 12:24).

7. 암미엘의 딸 밧수아는 밧세바다. 우리야의 아내였는데 다윗이 빼앗은 여인이다. 그 아들의 이름 중에 특이한 이름이 있다면 누구인가?

나단: 다윗의 범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던 선지자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였다는 것은 이 선지자를 존경하고 따랐다는 말이다. 쉽지 않은 일이다. 후일에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협력하여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운다. 이 나단은 예수님의 모계의 조상이 된다(눅 3:31).

8. 다른 아홉 명의 아들은 왜 어머니의 이름이 없을까?

압살롬의 반역 때 아들에게 겁탈당하여 지위를 잃어버린 10명의 왕비였을 것이다(삼하 16:21-22, 20:3). 엘리사마와 엘리벨렛이 두 번 나오는 것은 일찍 죽은 아들의 이름을 나중에 태어난 다른 아들에게 또 붙였을 것이다.

9. 아들이 전부 19명이다(삼하 5:14-16대로 하면 21명). 이 중에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인물이 없는 것 같다.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 왜 이럴까?

다윗이 전쟁에서는 탁월했지만 가정교육에서는 약했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부인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아비가일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부인이 너무 많은 것이 문제였을 것이다.

10. 아들이 19명이면 딸도 많았을 텐데 왜 다말만 소개할까?

암논이 짝사랑했다가 사고 친 대상이기 때문이다.

11.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에 등장하는 이름은 전원이 유다의 왕이다. 몇 절까지가 왕의 족보인가?

16절: 17절부터는 사로잡힌 자의 족보다. 유다의 공식적인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이긴 하지만 실제적인 마지막 왕은 여고냐(여호야김)다. 여호야김이 사로잡혀가고 이름만 남은 유다의 이름뿐인 왕이 그의 삼촌 시드기야다.

12. 솔로몬의 족보에 등장한 사람 중에 왕이 되지 못한 한 사람은 누구인가?

요하난: 살룸은 여호아하스의 별명으로(왕하, 23:30, 렘 22:11), 셋째(아래 설명 참조)가 제일 먼저 왕위를 물려받았으나 석달 만에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하고 여호야김, 여호야긴(여고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시드기야로 올라왔다.

참고) 여호아하스가 즉위하던 해에 여호야김은 25세, 여호아하스(살룸) 23세였다(왕하 23:31, 36). 그러면 11년 반후에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21세(대하 36:11)였으니 여호아하스가 즉위하던 해에는 9세(왕하 23:31, 36, 대하 36:11)였다는 결론이다. 그러면 살룸이 셋째, 시드기야가 넷째인데 여기에는 왜 순서가 바뀌었는지... 모르겠다.

13. 시드기야는 누구의 아들이란 말인가(15↔16)?

요시야의 아들, 여고냐(여호야긴)의 삼촌이다: 문제는 '아들'로 번역된 히브리어 Ben 때문이다. 이 말은 본래 '세우는 자'란 말에서 유래된 것인데 '가문을 세우는 자'란 뜻에서 아들이나 손자(후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여기서는 왕조를 이어간 자라는 의미인데 문자대로 아들이라고 번역한 탓이다. *NTV*는 아들 대신 *successor*(계승자)라고 번역했다.

14.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 북이스라엘은 190년 동안 왕조가 9개나 된다. 유다에는 몇 개의 왕조가 생기는가?

오직 한 왕조: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실제로 왕조가 바뀔 뻔한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바뀌지 않았다.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란 약속의 성취다(삼하 7:16).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가야 할 왕조이기 때문이다. 도중에 이 땅의 왕위는 잃어버렸지만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도 가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것은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15.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하신 약속은 어떻게 보면 여고냐(여호야긴)가 포로로 잡혀감에 따라 끝이 난 듯이 보인다. 그러나 포로생활 중에서도 가계는 끊이지 않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왕조가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지도자의 자리(총독)를 이어갔다. 이 때 유대인 포로를 인솔하고 돌아와서 총독이 된 자는 누구인가(스 2:2)?

스룹바벨: 바벨의 자손이란 뜻인데 이방신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유대인의 이름으로는 좀 불편하다. 하나님을 저버린 조상들 탓에 이런 이름도 가지게 되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16. 마 1:12 절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았고’라고 한다. 본문과 어떻게 다른가?

본문을 정돈하면 ‘여고냐는 브다야를 낳고 브다야는 스룹바벨을 낳고’라고 해야 한다. 이런 차이는 스룹바벨이 수혼제도(신 25:5-10)를 통해서 얻은 아들, 즉 아들없이 죽은 스알디엘의 부인이 동생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을 것이다. 그래도 전혀 하자가 없는 여호야긴의 손자다(스.3:2, 8, 학 1:1, 12).

17. (재미로)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이름 ‘버락’과 가장 비슷한 이름은 누구인가?

베레가: 베레크(동사는 바라크)가 축복하다는 뜻이다.

18. 마 1장의 족보에는 ‘스룹바벨이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라고 한다. 아비훗과 엘리야김은 어디 갔나?

여기서는 일단 스룹바벨까지 족보를 기록한 셈이다. 그 이후의 족보는 어느 아들을 통해서 이어졌는지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역대상 4 장

1. 앞에서 다윗과 솔로몬의 뒤를 잇는 왕의 족보가 소개되었다. 그것 역시 유다의 후손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또 유다의 아들들을 언급하는가? 유다의 아들은 베레스와 세라인데(2:4) 여기에서는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 더 있다. 왜 그럴까? 이들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베레스는 아들이지만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은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다(헤스론은 손자다. 2:18, 50절을 참고하면 이 부분은 유다의 직계자손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경우 갈미는 갈렘의 오기 혹은 다른 이름일 수도 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소개할만한 사람을 중심으로 산발적이거나 단편적인 소개가 많다. 2:3장에 언급된 족보의 보충적인 성격을 지닌 것이다. 소발의 후손(2), 홀의 자손(3-4), 아스홀의 후손(5-8), 야베스의 후손(9-12), 옷니엘, 갈렘, 셀라의 후손(13-22) 등이다.

2. 3-4절은 누구의 후손에 대한 언급인가?

홀의 자손(4절 끝)이라고 해야겠지만, 예담의 후손(3절 시작), 에브라다의 후손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기록 방식이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하지? 여기에는 여러 성읍 이름이 등장한다. 예담(대하 11:6), 이스르엘(3:1), 그돌(수 15:58), 후사(삼하 21:18에 십브개), 베들레헬 등이다. 전부 예루살렘 남쪽(유다 산지)에 있는 성읍들이다.

3. 아스홀은 누구데 여기서 느닷없이 튀어나오는가? 드고아를 세운 사람이라면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얘긴데?

헤스론의 유복자(2:24).

4. 야베스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2:55와 본문뿐이다. 그는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되었을까?

고통을 딛고 일어난 존귀함(9): 어머니가 수고하여 낳은 아들(=야베스,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아들들보다 힘들게 태어나서 아마 살기 힘들다고 생각되었거나 병약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 것을 시사한다.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신 듯하다. 그럼에도 후일에 존귀한 자가 되었다. 고통을 딛고 일어난 존귀한 이는 다른 이들의 격려와 힘이 된다.

기도의 사람(10):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이 그의 삶에 대한 요약이다. 이방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보인다.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자 하는 웅변이다. 내용만 보면 기복신앙처럼 보인다. 우리의 산업이 확장되고 우리의 기업이 넓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어떤 복을, 어떠한 동기로 구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다. 자신의 욕심이나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서기관들의 고통을 세움(2:55): 서기관들이 야베스라 이름하는 동리에 살았다. 야베스가 서기관들을 위한 도시를 세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고통 가운데서 살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 도시에 살던 이들의 이름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자손으로 일컬어지는 레갑의 후예들이 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도 야베스는 유명한 율법박사요, 많은 제자들을 남겼다고 한다. 곧 그는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추가로) 성문서에만 기록한 야베스의 축복: 유대인들의 성경구분에 따르면 역대기는 성문서다. 율법서와 선지서보다는 중요성이 떨어진다. 선지서인 열왕기서에 야베스의 축복사건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야베스가 구하여 받은 이런 복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실제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바벨론의 유민들에게 반드시 힘든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고통에서부터 일어나 존귀한 자가 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은 경위가 있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다.

5. 야베스가 기도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이 표현은 언약, 구원, 도움, 사랑, 공의... 중에 어느 것과 관련이 깊을까?

언약: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고 이루겠다는 뜻으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치신 그 하나님, 즉 언약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다소 공식적인 이름이다.

6.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은 가나안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다(수 15:13-19). 후일에 최초의 사사가 되었다(삿 3:9). 그 집안에 이런 인물이 또 있는데 누구인가?

여호수아와 함께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여분네의 아들 갈렘이 큰 아버지다(수 15:17). 복음송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의 장본인이다. 본문에 그렇게 명시하지 않은 것은 유대인들이 잘 아는 일이기 때문이다.

7. 혁혁한 업적을 남겨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지만 장가를 잘 가서 유명해진 사람도 있는 법이다. 유다 지파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메렛(18):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면 비유권대 한국의 촌놈이 미국 대통령의 사위가 된 셈이다. 업적과 관련 없이 유명인사가 될 수밖에 없다.

8. 유다 지파에는 성읍을 건축한 조상들이 적지 않다. '~의 아버지', 혹은 '~의 조상'이란 표현 중에서 지명을 모두 찾아보자.

그들, 후사, 베를레헴(4), 드고아(5), 이르나하스(12), 게하라심(14), 에스드모아(17), 그들, 소고, 사노아(18), 그 일라(19), 레가, 마레사(21) 그들이 두 번 나오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건설했기 때문일 것이다.

9. 유다지파의 인물을 소개하면서 성읍을 건축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업무에 종사한 사람도 소개하는 셈이다. 어떤 분야에 일꾼들이 있었는가?

공장(=기능공, 14), 세마포 짚는 자(21), 토기장이(23): 공장(工匠)은 금속 세공인을 가리킨다.

10. 유다의 후손에 대한 소개가 어디서 끝났는가?

23절: 2:3에서 시작된 유다 지파에 대한 소개가 여기까지다. 엄청나게 길다.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를 소개한다. 유다 지파 내에 거주했기 때문이다.

11. 시므온 지파는 번성하지 못하였더라(27)고 한다. 왜 그럴까?

시므온이 세겔 성에서 학살한 일(창 34장)로 아버지 야곱의 축복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창 49:5-7). 유다의 번성과 극히 대조적이다. 이 지파에 유명한 인물이 누가 있는가? 사울이 있다고? 우리가 아는 사울이나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다.

12. 시므온 지파가 거주한 곳 중에서 알만한 지명이 있는가?

브엘세바(28): 이스라엘의 최남단이다.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란 말은 이스라엘 전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다른 지명들도 이 지역과 가까운 곳이다. 시므온 지파가 유다의 남쪽 지방을 할당받았기 때문이다. 다윗 시대까지는 이 땅을 지키며 살았던 모양이다(31).

13. 시므온의 형제는 자녀를 많이 낳지 않았다(27)고 하다가 번성했단다(38). 이들이 목장을 찾아서 싸우려고 떠난 것이 새삼스럽다. 왜?

가난한 땅을 차지하라고 할 때는 맥없이 앉아 있다가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유대 땅의 일부를 얻어서 셋방살이 하듯이 살았는데 그야말로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혼자서 용기를 낸 격이다. 그래서 그나마 안정된 모습을 보여줬으니 칭찬을 해야지! 이 때 용기를 내서 부족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의 명단이 34-37절이다.

14.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 중에서 28-31은 다윗 왕 때부터 시므온의 거주지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결국 32절의 다섯 성읍만 남은 셈이다. 그렇다면 다들 어디로 간 것일까?

두 번의 공식적인 이주(39, 42)와 비공식적인 이주(? 다른 지파로)로 먼 훗날의 얘기이긴 하지만 시므온 지파는 지파의 모습을 잃어버린다.

역대상 5 장

1. 야곱의 12 아들 중에서 유다에 대한 소개가 길었다(2-3장, 4:1-23). 이제부터 르우벤 지파를 소개한다. 그런데 소개에 앞서 1-2절을 말하는 이유가 뭘까?

말미인 르우벤 지파를 먼저 소개하지 않은 이유(변명 같아 보이기도 한다): 서모 빌하와 통간한 르우벤의 실수(창 35:22)로 장자권이 다른 아들들에게로 넘어가버렸다. 한 순간의 실수가 한평생을 좌우하는 수가 있다. 이런 유의 실수는 어떻게든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2. 결국 야곱의 장자는 누구인가?

족보상으로는 르우벤, 명분상으로는 요셉(두 몫을 받음 =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독립된 지파가 됨, 형제를 붙임(창 50:21)) 실질적으로는 유다(주권자, 즉 왕가를 이룸) 그래서 유다 지파에 대한 소개가 제일 먼저 나온 것이다. 축복권은 레위 지파에게 갔으니 레위 지파도 장자권의 일부를 받은 셈이다.

3. 르우벤 지파는 앗수르에 사로잡히기 전까지는 엄청나게 번성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문자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어느 표현이 그것을 보여주는가?

유브라테 강에서부터 (인접한) 광야 지경까지: 비록 일시적이긴 했지만 이스라엘의 최대 영토가 동북쪽으로 유브라테 강까지 이르렀다는 말이다. 인구는 증대하였고 가축도 큰 무리를 이루었다.

4. 르우벤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앗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침략한 이유를 왕하 16장에서 찾아보자.

유다 왕이 이스라엘과 시리아(아람) 사이에 맺어진 동맹 관계에 대항하기 위해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다(왕하 16:17). 침략의 구실을 찾고 있던 디글랏 빌레셀은 이스라엘로 진군하여 갈릴리와 갈르앗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파괴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다(B.C. 733년 경). 앗수르가 침입했음에도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망하지 않고 유다는 훨씬 더 뒤에 바벨론에 망한 이유다.

5. 요단 동편의 넓은 땅을 가리키는 표현이 무엇인가?

길르앗(9, 10): 한 때나마 크게 번성하였던 좋은 땅을 가리킨다.

6. 갓이 몇 째 아들인데 르우벤 다음에 소개되는가?

7째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출생순서대로 소개하는 것이 아니다. 우선 요단 동편에 거하였던 두 지파 반을 먼저 소개하는 중이다(18). 장자 유다를 제일 먼저 소개하고 다음에는 일단 지역별(아래에서 위)로 소개하는 셈이다. 르우벤 지파가 맨 아래, 그 위에는 갓, 맨 위쪽은 므낫세 반 지파가 거주했다.

7. 갓 자손도 번창했다. 중요한 우두머리 세 사람을 고른다면?

요엘(12), 아비하일(14), 아히(15): 특별히 이들이 무슨 행적을 남겼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들이 거주했던 바산은 처음에 얻었던 땅에 비하면 엄청나게 확장된 땅이었다. 아마도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한 땅의 일부까지도 차지했던 모양이다.

8. 북 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은 두 명이다. 한 명은 초대 왕이고 다른 한 명은 거의 마지막 시기의 왕이다. 이 족보는 어느 왕 때에 기록되었을까?

후자: 그러니까 앗수르에 포로로 잡히기 직전의 일이다.

9.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제대로 승리를 누려본 적이 없다. 기드온 때 특별한 은혜를 누리긴 했지만 사사시대 내내 이민족에게 시달리기만 했다. 그런데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이 힘을 합쳐 대승을 거둔 이야기는 아주 이례적이다. 이 전쟁은 가나안 전쟁의 일부분이 아니다. 싸운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와 싸웠는가?

하갈 사람들과 그와 동맹한 자들(10, 19-20): 싸운 상대가 가나안 칠족과 다르다(신 8장). 사울 왕 때의 일이라면(10) 요단 서편의 이스라엘이 미약하던 때다.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때라도 일부 전쟁터에서는 용감하게 적을 무찌르는 격이다. 이순신 장군이 그랬고, 한니발과 싸운 로마 장군이 그랬다.

10. 다른 두 지파에 비하면 므낫세 반 지파에서는 이렇게 인물이 없나(23-24)? 번성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간단하게 기록했을 뿐 번성했고, 유명한 족장들도 있었다: 므낫세가 요셉의 장자였지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넘겨줬다. 그럼에도 크게 번성한 지파가 되어 넓은 땅을 차지했고 크게 번성했다.

11. 길르앗 지방의 두 지파 반이 한 때는 하나님을 힘입어 큰 승리를 얻었다(19-22). 그러다가 왜 사로잡혀 떠났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25-26):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사는 성도는 한 때 아무리 잘 나가도 하나님을 저버리면 더욱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힘입을 때와 버렸을 때의 모습을 극명하게 비교하면서 선택을 강요하는 셈이다.

12. 요단 동편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성취다. 그런데 앗수르에 잡혀간 것까지 생각해 보면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그 복을 제대로 누리고 보존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몫이다. 주신 복을 지키지 않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버려도 그 약속에 매인 하나님은 아니다. 어떤 경우여라도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13. 요단 동편의 두 지파 반은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는 말은 귀환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탐내어 함께 번성했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채 영원히 떠나버렸다.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것이 위험할 때는 더 큰 위험을 당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힘들어도 형제와 함께 고생하는 것이 덜 위험하다.

역대상 6 장

1.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버림받은 레위가 가장 중요한 지파 중의 하나가 되었다. 누구 때문이라고 할까?

모세: 아론과 미리암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모든 일의 시작은 모세로 말미암은 셈이다. 금송아지 사건 때 헌신한 레위 지파 전체의 역할(출 32:26-29)도 귀하고 더구나 비느하스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민 25:7-11).

2. 레위 지파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은 모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누구를 추천하면 좋을까?

아므람: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낳은 것 때문이다. 아무런 다른 업적이 없어도 이것만으로 위대한 일을 한 것 아니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 영국의 웨슬레의 어머니도 아이 12을 낳고 기르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위대한 일을 한 셈이다.

3. 웃시야 왕이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했을 때, 왕의 외람됨에 반항한 용맹 있는 제사장이 있었다(대하 26:17, 18). 이것은 참으로 제사장답게 행한 행동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족보에서는 무엇이라고 평하는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10): 아사랴에 대한 평가가 너무 간단한가?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 마디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칭찬일까? 그의 후손들 중 한 사람인 우리야는 아하스 왕이 우상의 제단을 세웠을 때 그 일에 동조함으로(왕하 16:10-16) 이 족보에서 제하여지고 말았다.

4. 레위의 세 아들들은 전부 성막과 관련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다(민 3장). 이들 중 제사장은 어느 아들의 자손들이 맡았을까?

그핫(고핫): 15절까지는 그핫 자손의 족보다. 그핫의 후손들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일을 맡았는데 동시에 이 계열에서 아론이 나와 제사장 직분을 맡았다.

5. 아론의 자손 중에 대제사장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아들은 누구일까?

엘르아살(4):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었고,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는 홈니와 비느하스(엘리의 아들들)가 나와서 집안을 맡아먹었다. 반면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풀어주기도 했다(민 25:7-11).

6. 사독(8)은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이다. 어디서 등장하더라?(=누구인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다(삼하 15:25, 왕상 1:39):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언약궤를 지키고 다윗 사후에 솔로몬의 즉위를 도운 대제사장이자다. 그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자청하여 연락병 역할을 했다(삼하 18장).

7.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도운 제사장의 이름도 보인다. 누구인가?

히기야(13, 대하 34:14, 왕하 22:4-14).

8. 나라가 망할 때도 대제사장의 직위는 유지됐다. 포로 생활을 한 제사장은 누구인가?

여호사닥: 스라야는 죽임을 당했고(왕하 25:18-21) 여호사닥은 포로로 잡혀갔다(15).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도 백성들의 죄를 속할 능력이 있는 걸까? 제사장의 역할이 자신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잘 보여준다. 제사장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훗날 이 땅에 오실 진짜 제사장의 그림자이기에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9. 레위의 아들들을 다시 언급하는 것(16-30)은 위에서 앞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충이다. 그 중에서, 고라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탐내다 가족과 함께 땅에 삼켜졌다(민 16:31). 그런데 후손이 있네(22-28)?

아들 앓실은 아버지의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 가족이 그렇게 징계를 당해도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그에게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후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분을 담당한다(33-38). 심지어 사무엘도 그의 후손이다(28).

10. 레위의 아들은 셋이다(1, 16). 이 중에 누구의 족보가 가장 상세한가? 왜 그럴까?

그핫의 후손에 대한 언급이 가장 길다(2-15, 22-28): 훗날 그핫의 후손 중에서 아론과 모세가 나오고 결국은 제사장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다. 게르손(20-21), 므라리(29-30)에 비해서 그핫의 자손에 대해서 소개하는 22-28절이 더 자세한 것도 아마 사무엘 때문일 것이다.

11.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는 언제인가?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예루살렘)으로 옮긴 때(삼하 6장): 7, 80년 정도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다시피한 언약궤를 다윗이 제자리에 옮겨놓고 찬양대를 조직하여 예배를 드리게 했다.

12. 다윗이 조직한 찬양대는 지휘자가 몇 명인가?

세 명: 가운데는 헤만(33), 우측은 아삽(39), 좌측은 에단(44)이 맡았다. 지휘봉으로 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늦게금으로 지휘한 모양이다(15:19). 이 중에 아삽은 찬양곡을 많이 지었던 모양이다(시 50, 73-83).

13. 가뜰이나 족보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찬양대 지휘자의 족보(33-47)는 앞에서 언급된 것이므로 중복이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상향식 족보: 앞에서는 하향식 족보로 혈통의 정통성을 강조하지만 이 부분은 현재의 인물, 즉 세 지휘자에 강조점이 있는 족보다.

14. 50-53은 4-8절의 반복이다. 특별 대접을 하는 셈인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 있다면 누구 때문일까?

사독이 단독으로 대제사장 직을 맡았기 때문일 것: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다(아비아달과 사독) 둘로 나뉘어 있던 나라(사울의 지지세력과 다윗의 지지세력)가 합쳐진 탓이다. 그러다가 후계자 문제로 아비아달 계열의 제사장직이 박탈되고(왕상 2:26-27) 사독 계열에서 대제사장직을 맡았다. 저주가 임할 것이라던 엘리 제사장이나 그 계열의 아비아달이 이곳의 레위 족보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셈이다(이다말의 후손이다).

15. 족보를 소개하는 걸로 그치지 않고 이들이 거주하게 된 성읍까지 소개한다. 휴~! 레위지파의 거주지를 소개하는 데에 레위지파가 아닌 사람이 있는가?

여분네의 아들 갈렘(56)은 유다지파다: 헤브론은 갈렘이 약속에 따라 점령하고 차지하였다(수 14:10-13). 후에 도피성으로 지정되었고(수 20:7) 그해 종족이 제비를 뽑았다(54-55).

16. 레위인들은 어디에 거주하였는가?

다른 지파의 지경 내에: 야곱이 흠여지리라고 했던 그대로 흠여졌다(창 49:7). 단, 귀중한 사명을 띠고.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얻은 복이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은 저주마저 축복으로 바꾼다.

역대상 7 장

1. 지금까지 언급한 지파는 유다 지파(4:1-23)와 그 안에 거주한 시므온 지파(4:24-43)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과 레위 지파였다. 이제 남은 지파는 몇 지파인가? 여기서는 몇 지파를 소개하는가?

8지파, 6지파: 땅을 분배한 것은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지파였다(요셉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되었기 때문). 반 지파가 남아도 남은 것이니 아직은 8지파가 남았다. 여기서는 6지파를 소개한다(잇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그러면 2지파(단, 스불론)가 다음 장에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는다. 단, 스불론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지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다른 5지파는 남쪽 유대로 넘어와서 지파의 명맥을 이어갔다.

2. 가나안에 들어갈 때 잇사갈 지파의 수는 64,300이었다(민 26:25). 다윗의 때라면 거의 400년 이상이 흘렀다. 그런데 87,000명이라면 전혀 증가하지 않은 셈이다. 왜 그럴까?

사사시대가 악한 시대였고 복을 받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이다. 다른 지파도 별반 다르지 않다. 더구나 잇사갈의 족보에는 알 만한 사람이 없다. 1절의 플라도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삿 10:1)과 동명이인이다(시대가 전혀 다르다). 잇사갈 지파에서 유일하게 나온 사사를 족보에서는 왜 빠뜨렸을까? 별로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 못한 탓인가?

3. 야곱은 베냐민을 물어뜯는 이리라고 예언했다(창 49:27). 그런 호전적인 기상으로 기브아에서 전체 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하다가(삿 20장) 멸족당할 뻔하였다(첫 번째 왕인 사울을 배출하기도 하고, 나라가 쪼개질 때 합법적인 다윗 가문을 지지하기도 했지만). 그런 기상이 족보에는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베냐민의 아들과 손자는 전부 큰 용사(7, 11)거나 용감한 장사(9)다: 이런 용감함이 때로는 민족에게 나쁜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지만 사사를 도와서 시스라와 싸우거나(삿 5:14) 사울이 나라를 세울 때(삼상 17장) 큰 힘이 되기도 했고 나라가 분열될 때 유다 지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데 크게 공헌했다. 베냐민 지파의 이런 역사는 용감하냐 아니냐보다 그것을 어떤 일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은사가 무엇이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다.

4. 납달리 지파에 대해선 왜 이렇게 간단하지(13)?

할 말이 없는 탓이다: 특출한 인물도 없고, 특별한 일도 없는 지파였다. 야곱이 말한 대로 '놓인 암사슴'처럼(창 49:21) 제멋대로 뛰놀다가 사라진 모양이다.

5. 므낫세의 장자는 누구인가?

마길: 비록 소실의 아들이었으나 적자로 보이는 아스리엘(실제로는 마길의 손자, 민 26:31)이나 둘째 슬로보핫에 대한 소개보다 훨씬 자세하다. 실제로 마길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길르앗을 정복하였다(민 32:39). 출신 성분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6. 므낫세가 아람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은 마길인데 마길은 누구와 결혼하는가?

베냐민 지파의 여인(15, 12): 12절의 '일'은 7절의 '이리'다. 비록 아버지는 이방여인과 결혼하여 자신을 낳았을지라도 자신은 동족에게서 아내를 구했다. 그의 이런 자세가 그를 위대한 인물로 만든 것이다. 아버지보다 나은 자식이 더러 있다. 아버지가 술에 절어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 중에는 더 심하게 술에 절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절대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 아들도 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부모 탓할 일이 아니다. 부모의 실수를 경고 삼아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

7. 슬로브핫의 딸들은 유명하다. 민 27:1-11을 읽어보고 이들에게 현대적인 별명을 붙여보자.

여권신장론자, 여성인권운동가: 아들이 없다고 아버지의 이름이 사라질 수 있느냐고 항의하여 딸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8. 21절은 원문 자체가 불분명하여 누가 짐승을 뺏으려고 했는지 시기가 언제인지 명확하지는 않다. 분명한 것은 에브라임 가문에 큰 재앙이 있었다는 것이다. 야곱은 에브라임이 '큰 족속'이 될 것을 예언하였으나(창 48:19) 송두리째 이렇게 짓밟혀 버렸다. 하나님의 섭리들은 가끔 그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이런 좌절이 성경의 누구를 닮았는가?

가인을 낳은 아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여인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줄 알았다. 그러나 그가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았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형제의 위로다(22).

9. 에브라임의 집안에 다시 아들이 태어나는 기쁨이 있었다 하더라도 슬픈 기억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무슨 흔적이 남았는가?

아들에게 브리아 곧 재앙 중에라는 우울한 이름을 붙여 주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초와 재난이 오히려 소망이 되기도 한다(애 3:19-22). 그런 가운데 딸 세에라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그 자신의 힘으로 성읍들을 세워(24절) 가문을 영예롭게 했고, 논의 아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 이로써 에브라임 가문에 있었던 재앙도 충분히 회복되고 주도적인 지파가 되었다(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라고 불린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고난을 이겨내면 꽃피는 날이 기다리고 있다.

10. 훗날 에브라임 지파는 콧대가 높아서 다른 지파와 적잖게 마찰을 일으킨다(삿 8:1, 12:1, 왕상 11:26).

왜 그럴까?

요셉의 둘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12지파의 장자 행세를 하는 셈이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덕이냐? 바로 자기 아버지 덕분 아니냐? 그러니 큰소리치는 지파가 된 것이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27)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지도자가 바로 자기 지파였으니...

11. 에브라임 지파는 아마도 가나안의 노른자위 땅을 차지한 모양이다. 낫익은 지명을 찾아보자.

벤엘, 세겔, 벤스안, 다아낙, 므깃도: 벤엘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며 세겔은 본격적으로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전 백성이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던 곳이다. 벤스안은 지금의 벤산이며, 다아낙과 므깃도는 천혜의 전략적 요충지다. 아마겟돈이란 말이 므깃도 언덕을 뜻하는 '할 므깃도'의 헬라식 발음이다.

여호수가 땅을 분배했을 때에는 벤엘만 에브라임 경내에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므낫세의 지경에 있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땅을 다 차지했다는 뜻이다.

12. 아셀 지파의 족보는 제일 무미건조한 편이다. 한 줄짜리 납달리 족보(13)보다는 훨씬 풍성하지만 너무 단조롭다. 그렇다고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뜻은 아니다(40). 복은 누린 것 같은데 숫자가 그리 많지 않다. 이것은 아셀 지파가 군사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창 49:20, 신 33:24-25을 참고하여 아셀 지파의 모습을 그려보자.

야곱이나 모세의 축복이 주로 농경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아셀 지파는 군사적인 측면에서나 행정적인 면에서는 별로 힘이 되지 않았으나 농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공헌한 것으로 여겨진다. 더구나 그들이 분배받은 곳은 기손 강 유역의 기름진 평야지대였다(수 19:17-23). 지파마다 받은 복이 다르듯이 공헌하는 바도 조금씩 달랐다. 우리도 나름대로 받은 달란트가 각기 다르다. 받은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헌신해야 한다.

역대상 8 장

1. 족보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지파는 유다 지파였다(2-4장). 아직 소개하지 않은 지파가 셋인데 7:6-12에 이어 또 베냐민 지파를 언급한다. 왜 베냐민 지파를 자세하게 취급할까?

나라가 둘로 나뉠 때 베냐민 지파만 남쪽 유다(다윗 왕가)에 합류했다(왕상 12:21, 23). 북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핵심이 된 것은 당연한 결과다.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도 마찬가지였다(느 11:4, 7, 31, 36). 줄을 잘 서야 한다. 하나님 편에 줄을 서야 하는 법이다.

한 때 멸족의 위기를 당했던 이 지파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사실을 알려줌: 사사 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거의 멸종될 우려도 있었는데(삿 21:2-3, 6) 이 지파가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사실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다.

2. 여기 베냐민의 족보는 계보를 따른 족보가 아니라 특정한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탓에 연결이 잘 안 된다. 쉽지 않지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자.

1-5: 베냐민과 벨라의 자손, **6-28:** 에훗의 자손, **29-40:** 사울의 자손

3.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중요하게 언급되는 인물은 에훗이다(6-28). 어디서 본 듯한 이름인데?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의 이름이 에훗이다(삿 3:15). 동일한 갈아 보인다. 잘 낫고 못 낫고 그 후손들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4. 6절은 ‘그들이 그들을 사로잡아갔다’라는 말이다. 에훗의 후손 족장들이 마니합으로 사로잡혀 갔는지, 다른 사람들을 사로잡아 갔는지는 의미가 분명치 않다. 주어와 목적어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은 탓이다. 그냥 넘어가자. 사하라임이 내보낸 아내와 새로 얻은 아내의 후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내보낸 아내 후심에게서 낳은 아이들은 아비돗(나의 아버지는 선하시다), 엘바알(하나님은 역사하신다)이며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다. 반면에 모압 땅에서 새로 얻은 아내가 낳은 아이들 중에는 메사(모압왕과 같은 이름), 말감(모압의 우상 이름)이 보인다. 특별한 업적에 대한 기록도 없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잘 드러나 있다. 사하라임이 어떤 연유에서 이스라엘 혈통의 아내를 내버리고 모압 여인에게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여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5. 브리아(13)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더라?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한 에브라임의 후손 대신에 낳은 아들이다(7:23). 베냐민 지파의 브리아도 자기 이름에 얹힌 에브라임의 조상들의 원한을 기억하고 원수 갚는 일에 한 몫을 했던 모양이다.

6. 에훗의 후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6-28).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완전하게 점령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의 땅이 아니었다.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에 거주했다는 말이 된다. 이 말이 훗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까?

조상들이 거주했던 곳에 후손들도 거주해야 한다. 예루살렘이 수도나 왕도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귀환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마음을 먹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느 11:2).

7. 기브온에 거주한 자들은 여이엘의 후손이다. 여이엘은 왜 유명한가?

사울왕의 조상이기 때문이다: 여이엘은 사울 왕가의 중시조인 셈이다. 사울도 기브아 사람이다(삼상 10:26)

8. 사울의 아들들은 전부 전쟁에서 죽거나(삼상 31:6), 자객에게 죽었다(삼하 4:6). 그럼에도 번성한 것은 누구 덕분인가?

요나단과 그의 아들 므립바알(34, 삼상 20:15, 23, 42, 삼하9:7) 므립바알은 므비보셋을 가리킨다. 요나단이 다윗을 도우며 후손을 부탁했기 때문이다. 바알이란 주인을 뜻하는 말로 히브리인들도 즐겨 쓰던 말인데 이게 나중에 우상을 가리키는 말이 되자 유대인들이 사용하지를 꺼리는 바람에 므립바알이 므비보셋으로 바뀌게 된다.

9. ‘큰 용사’로 전쟁터에서 활을 잘 쏘는 자가 무려 한 세대에 150명이나 있었다(40)는 것은 후손이 아주 번창했다는 의미다. 이렇게 번성한 후손을 도대체 누구의 후손이라고 할까?

양발 절름발이 므비보셋(므립바알) 몰락한 왕가의 후손으로 발도 제대로 쓰지 못하던 그를 다윗이 후대하여 준 결과 나라를 위해 일할 능력이 극대화된 셈이다. 물론 그의 아버지 요나단도, 그와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닮은 다윗도 가볍게 볼 수는 없다.

역대상 9 장

1. 백성들의 명단을 왕조실록에 기록한다? 왕조는 사라진지 오래인데?

왕조는 사라졌지만 기록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추가로 기록했다는 말이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그만큼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말이다. 새로운 신정국가를 세운 주역이다.

2. 2절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치 않다. 원문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한글 번역을 타박해서는 안 된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은 어느 성읍이며 '처음으로 거주한' 것은 언제를 가리키는지 그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3절을 보면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처음 거주한 사람이라면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거나 아니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거하게 된 사람이라고 해야 하는데 문맥에 따른다면 포로에서 돌아와서 맨 처음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져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되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는 두 나라의 개념은 사라졌다. 이제 이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스라엘, 혹은 유다: 1절의 '온 이스라엘'은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를 뜻하는 민족적인 의미다. 북 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사라졌다. 그러나 많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사람들(3)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 사람들도 유다로 도망해 오거나 앗수르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 되돌아 왔거나 함께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바벨론에서 서로 만나 사귀기도 하면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계기를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이다.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그 땅에서부터 올라와' (호 1:11) 다시 한 나라를 이루게 되리라(겔 37:22)는 것이 예언되었었다. 결국 남 유다도 망하고 포로로 갔지만 귀환하여 명맥을 이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된다.

4. 유다가 사로잡혀간 것은 국가의 힘이 쇠퇴한 탓 아닌가?

겉보기에는 그렇다: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유다가 범죄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이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마저도 하나의 증상일 뿐 원인이 아니다. 탁월한 학자나 문화비평가들이 보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다.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다.

5. 포로로 갔다가 옛 성읍에 제일 먼저 돌아온 대표적인 사람들이 왜 제사장,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일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해도 제일 먼저, 아니 그래도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지킨 자들이 이들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소중한 그들에게는 살기 편한 바벨론이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하는 곳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난관이 첩첩히 쌓인 곳이지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에 제일 먼저 돌아왔을 것이다.

6.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막일꾼을 가리킨다. 원래는 가나안 족속이었지만 살려주는 대신 성전의 물길는 자, 나무패는 자가 된 사람들이다(수 9:27). 포로로 잡혀가는 와중에 신분을 세탁해서 다른 직종으로 옮겨가면 되지 않았을까? 굳이 그 신분을 유지해서 돌아올 필요가 있었을까?

일의 경중이나 신분의 고하를 따진다면 돌아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런 것을 따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출신성분과 일의 경중에 상관없이 자신의 일을 소중하게 여긴 진정한 신앙인이었다는 말이다.

7.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적이 있다(느 11:3-34). 역대기 기자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한 후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을 따로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새역사의 주인공이다: 바벨론에서 귀환하여 제대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주역들이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지역이기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했던 자들이었다. 원래 파괴된 도시를 새로 재건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 새로 세우는 것이 쉽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자초한 것이다. 레위지파 외에는 주로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들이다(4-9).

8. 유다, 베냐민, 제사장 중에서 누가 제일 많은가?

제사장(1760, 유다 지파 = 690, 베냐민 지파 = 965): 참 특이하다. 출애굽 때부터 가장 강성한 핵심 지파가 유다였는데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 가족이 제일 많다니! 아무리 예루살렘이 제사 드리는 유일한 장소였다고 해도 이걸 정말 많은 숫자다. 그만큼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었다는 증거다.

9. 당시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다(속 3:1) 그러면 본문의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란 무슨 의미일까?

성전의 실무를 맡은 사람 아닐까? 대제사장의 최측근으로 가장 바쁘게 중요한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10.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시를 쓴 사람은 누구, 혹은 누구의 자손일지 본문을 근거로 생각해 보자.

고라 자손(19, 시 84:10): 시 42, 44-49, 84, 85, 87, 88편에 고라 자손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있다. 고라는 모세의 종형으로 르우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온이 작당하여 족장 250명과 더불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 모세 형제가 분수에 지나치게 굴며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인다고 그랬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 채로 땅에 삼킨 바 되어 음부에 떨어졌다(민 16장). 아버지의 반역행위를 지지하지 않은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서(민 26:10)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11. 문지기의 직무를 맡은 사람들은 공채에 합격한 탓인가?

조상들의 직무를 물려받았다(18, 19): 광야에서 생활할 때 레위 지파는 성막을 빙 둘러 주변에 진을 쳤다. 그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였던 조상들의 직무를 성전을 건축한 후에도 후손들이 물려받았다. 왕의 문(18)이란 왕이 성전에 출입하는 문이며 동쪽에 있었다. 레위 자손의 진영의 출입문도 성막의 출입문이 있는 동쪽이었다. 고라는 그핫(고핫)의 자손으로 본래 임무는 지성물을 운반 또는 관리하는 것이었다(민 4:4-15).

12. 비느하스에게는 특별한 수식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이란 말이 있다(20).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럴까?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대신 풀어준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민 25:6-13). 그가 아버지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문지기들을 거느렸다는 말일 것이다.

13. 광야에서 레위인들에게 적절하게 임무를 맡긴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오랜 세월 동안 레위인들은 할 일이 없었다. 새롭게 이들에게 직분을 나누어 준 사람은 누구일까?

다윗과 사무엘: 사사시대 말엽에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 스스로 돌아온 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7, 80년 정도 보관해 두었다가 왕궁으로 모셔온 것은 다윗이다. 이 다윗이 사무엘이 기초한 제도를 기반으로 레위 지파들에게 직분을 주고 제대로 활동하게 한 장본인이다.

14. '...다윗과 선견자 사무엘이 전에 세워서 이 직분을 맡긴 자라'(22). 이 문장에서 '전에 세워서'가 무슨 뜻일까?

신뢰하여: 개역성경이 오역을 한 탓이다. 그럼에도 한글 성경에서는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前인지, 殿인지도 알기 어렵다. 개역한자에는 前으로 되어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세웠다는 의미인데 문맥으로도 그렇지만 명백한 오역이다. *The gatekeepers had been assigned 'to their positions of trust' by David and Samuel the seer[NIV].*

15. 군에서 장교는 외부에서 살고 졸병은 내부에서 거주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24시간 근무를 한다. 말단 직원은 현장을 지키고 사장은 외부 일을 핑계로 현장을 멀리 한다면 미래가 뻔하다. 반면에 성전 문지기들의 근무형태는 어떠한가?

우두머리들은 성전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직무를 수행했고 다른 문지기들은 마을에 거하면서 차례가 되면 성전으로 와서 근무를 했다.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현상과 반대로 되어있다. 우두머리가 더 책임감을 지녀야 한다. 하나님께 가까울수록 더 경외하는 마음과 책임과 열성을 지녀야 한다(레 10:3).

16. 문지기라고 문만 지키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 무슨 일을 했는가?

성소에 필요한 소제물, 관유, 떡도 만들었다: 29, 31절은 소제와 관련된 내용이고, 30절은 성소의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는 관유(출 30:23-25)를 만드는 일이다. 떡상의 떡도 만들었다.

17. 문지기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온통 문지기 얘기뿐인가?

제사장들이나 찬송하는 자들에게 비하면 비전문적인 일이지만 이들의 헌신을 귀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이다(26). 직업에도 귀천이 없다던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이 회복된다면 무슨 일인들 기쁘지 않으며 무슨 일인들 귀하지 않을까? 김구 선생님이 그랬단다, '독립이 된다면 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고.

18. 35-44절은 어디서 본 듯한데?

8:29-39의 중복이다: 뒤이어지는 사울 왕의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덧붙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9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실제로는 9지파)를 언급한 2-8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제야 본론으로 넘어가려는 셈이다.

역대상 10 장

1. 길고 긴 족보 이야기가 이제 끝났나? 사울이 아무리 버림받았다고 해도 좋은 얘기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비극적인 최후만 말하는가?

얘기의 중심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기 때문이다. 다윗을 말하려고(13-14) 디딤돌로 사울의 최후를 말하는 것이다.

2. 사울이야 죽어 마땅할지 모르나 신실했던 요나단이 이렇게 죽다니?

안타깝지만 구원역사에서 요나단이 맡은 역할이 다윗을 이끌어주고 사라지는 것이었다. 다윗을 세우고 격려하며 이끌어주고 아버지와 함께 죽은 요나단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다윗 못지않은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이라고 말한다.

3. 전쟁에 나가면서 사울이 지도자로서 잘못된 것이 또 무엇인가?

왕자 셋을 데리고 나가서 함께 죽을 이유가 없다: 서로 떨어져서 협력하지 않고 몰려 있다가 한꺼번에 죽은 것은 잘못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분들도 임원들이 한 비행기를 타지 않는다. 혹시 비행기 사고로 죽더라도 한꺼번에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물며 나라의 뒷일을 염려한다면 왕자 셋과 함께 죽는 어리석은 짓은 피해야 했다. 그래도 이스보셋이 남긴 했지만...

4.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서도 교회의 직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제가 교회 장로인데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짓말을 하더라. 사울도 어떤 점에서 그 모양인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다가 버림받은 주제에 할례는 뭐 그리 대단한가? 하나님 없는 할례가 무슨 소용인가(롬 2:25)?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서 형식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만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5. 사울의 무기를 가진 자는 요즈음 말로 하면 수행 부관이다. 가장 용감하고 가장 충성스러운 자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주군의 마지막 말을 왜 듣지 않는가?

듣지 않는 것도 충성이다: 다른 말은 다 순종한다고 해도 자신을 죽이라는 말을 어떻게 순종하겠는가? 이해가 된다. 그렇게 보면 처자식을 죽이고 전쟁에 나간 계백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독한(?) 사람이다.

6. 사울이나 부관의 죽음이 어떤 점에서 특이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해도 자살하는 장면은 성경에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삼하 17:23의 아히도벨, 왕상 16:18의 시므리, 마 27:5의 유다). 젊은 시절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던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함으로 유난히 슬픈 최후를 맞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7. 이스라엘 골짜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한 것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삼하 2:9절에 보면 아브넬이 곧 회복했음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망명정부나 다름없는 이스보셋 정부에 그 정도 능력이 있었다면 왜 길보아 전투에서 참패했을까?

사울의 잘못이 크다는 말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대로 징계를 받은 것이긴 하지만 전투를 잘못 지휘한 잘못이 컸음을 잘 보여준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으면(13-14) 군대 통솔에도 저절로 문제가 생기는 법이다.

8. 사울의 머리와 갑옷이 블레셋 온 땅에 전시되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긴 사람이 누굴까?

다윗: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사울에게 쫓기면서 그렇게 고생한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보다는 조사를 지어 슬퍼하면서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라고 했다(삼하 1:20). 단순히 사울의 죽음이 슬픈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어지는 아픔이었겠지만...

9. 사울의 갑옷을 둔 신전은 아스다롯의 신전이다(삼상 31:10). 그런데 머리는 왜 다곤의 신전에 달았을까?

거의 같은 장소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 아스다롯의 신전과 다곤의 신전이 복도 하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도무지 상상도 못했던 발견이었다. 성경기록의 역사적 신빙성을 더해준 발견이었다. (특종 믿음 사건 p 147)

10. 전투에 패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멀리 요단 동편으로 가서 망명정부를 세운 형편으로 아는데 어떻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적진 깊숙이 쳐들어가서 사울의 시체를 수습해 왔을까?

블레셋이 그렇게 막강한 군대는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이 일 역시 사울이 전투를 잘못 지휘했음을 암시해준다고 하겠다.

11.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특별히 사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이유가 있을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암몬 왕 나하스가 침입해서 항복을 하더라도 눈을 빼야 살려주겠다고 위협하던 때에 사울이 나서서 구해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은 셈인데 이로 인해서 다윗은 이들에게 또 감사사를 표한다.

12. 사울의 생애를 간단하게 요약하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배신한 왕: 저자의 관심은 다윗에게 있다.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사울의 비극적인 최후를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을 뿐이다.

역대상 11 장

1.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삼겠다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다. 백성들이나 장로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한 것인가?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 다윗은 사울이 죽고 난 직후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유다 지역의 반쪽 왕으로 7년 반이나 지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인 것은 그 후의 일이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줄 알면서도(2) 사울의 권력을 두려워해서 다윗을 따르지 않았고 사울의 사후에도 10지파는 이스보셋을 따랐다. 7년 반이나 대치하고 있다가 한 쪽으로 기울어지자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도 사람들의 의도나 형편을 전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열심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2. 백성들이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무엇을 제시하는가?

혈족(신 17:15) 사울의 통치하에서도 실질적인 지도자였음(삼상 18:5-7) 여호와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음(삼상 16:13): 이런 사실을 밝히 알면서도 사울을 따르고 이스보셋을 따랐으니 혼이 나야지!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시류를 따라서 움직인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엉뚱한 짓을 많이 하더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는 시류를 거스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복되다. 한 혈족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복한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 복한주민들이 '우리가 한 민족 아니냐?'고 할 것과 비슷하다.

3. 사무엘이 오래 전에 기름을 부었는데 장로들이 원데 또 기름을 붓는가?

진짜는 사무엘이 부은 것이고 장로들이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을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공개적인 절차인 셈이다. 결국 다윗은 세 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삼상 16:13, 삼하 2:4, 5:3).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다. 따지고 보면 절대로 조금이 아니지만 그럴 조금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신앙이다.

4.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400년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여부스는 점령되지 않은 땅이다. 그만큼 점령하기 어려운 요새였다는 말이다. 다윗이 점령해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곳이 된다. 어디인가?

예루살렘: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여부스를 점령하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그 과정에서 요압의 충성과 용맹스러움이 필요했다.

5. 구약에서 시온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처요(시 9:11) 하나님께서 세우신 곳(시 14:32)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고(시 48:12, 렘 14:19, 암 6:1),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도성(히 12:22)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백성과 같이 서는 신천신지를 가리킨다(계 141). 다윗이 빼앗은 시온(요새) 산성이 왜 이렇게 거창한 의미로 발전했을까?

훗날 바로 북쪽의 좀 더 높은 구릉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구릉을 시온이라고 불렀기 때문이다. 처음의 시온은 다윗성이라고 구별해서 부른다. 다윗이 점령한 시온은 주변의 여러 구릉 중에서 가장 낮은 구릉이지만 물이 나는 곳이라서 일찍이 요새화 되어있어서 그렇게 불렸었다.

6.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있듯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란 점(10): 하나님께 충성하는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니 복되다. 하나님을 저버린 왕에게 충성을 다 했지만 결국은 버려지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7. 다윗의 부대는 군장이라고 부르는 삼 인 그룹이 두개가 있고 각 그룹 밑에 15명씩, 즉 각각의 군장 밑에는 5명의 용사가 소속된 형태이었을 것이다. '군장'을 뜻하는 מַחֲנֵה(살리쉬)란 말은 '삼 인'이라는 뜻도 있다. 첫 삼인은 누구 누구인가(삼하 23장 참조)?

야소보암(삼하 23:8의 아디노파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다(삼하 23:11): 야소보암은 1월반 대장으로 24,000명을 거느렸고, 엘르아살은 2월반 대장으로 24,000명을 거느렸다(27:2-4, 도대 = 도도, 엘르아살의 아비다, 삼하 23:9) 군단장 격이다. 엘르아살의 무용담(13-14)은 삼마의 그것과 비슷하다(삼하 23:11-12). 그렇다고 시비를 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업이 같은 사람이 비슷한 업적을 남긴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8. 두 번째 삼인에 관한 내용이다. 베들레헴 우물물이 그림다는 말 한 마디에 적진을 돌파해서 물을 길러오는 사람이나 그것을 마실 수 없다며 물도 마시지 않는 하나님께 부어 드러버린 다윗이나 피장파장이자. 어떤 점에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짓을 했다는 점: 왕의 한 마디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릴 적 고향의 추억에 빠진 것, 부하들도 만약에 죽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인가? 전쟁 중에 물 한 컵 드러갔다가 죽었다면....

진심어린 충성과 부하를 아끼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준 점: 진실된 충성이나 사랑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다. 물 한 그릇에 목숨을 걸다니? 그 아까운 물을 부어버리다니? 전도를 꼭 그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 도무지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행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일 때가 많다. 눈이 빠졌다가 눈이 찌짐 붙었다는 이야기도 그런 셈이다.

9.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냥 버린 것이 아닌가?

자신이 실수를 했음을 깨달았음: 부하들이 목숨을 걸게 한 실수를 하고서 어떻게 마실 수 있겠는가? 부하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이라면 왕이 그 정도 권력을 즐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아래 사람을 진정으로 살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물을 피라고 생각하면 마실 수 없고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다(신 12:16). 진정으로 피라고 생각한 것 같다. 여호와께 부어드린다는 것은 제사의 일종으로 붓는 제사(=전제)를 가리킨다.

10. 다윗이 부어버린 물을 보면서 이 세 용사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을 부어버리다니?

자신을 위하여 시원하게 마시는 모습도 기쁘겠지만 그 물을 자신들의 피로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다루는 (자신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욱 감동적이었을 것이다.

11. 이 일이 언제 있었길래 다윗은 수도에 있지 않고 아돔람 굴에 있는가?

다윗이 기름부음 받아서 왕이 된 직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다윗을 찾으러) 온 적이 있었다(삼하 5:17). 제대로 싸울 준비가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요새로 나갔던 그 싸움인 것 같다. 그러다가 고향 근처에서 싸움을 계속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

12.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한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한 것인가?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다윗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다윗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다 왕이 될 수는 없다. 왕은 부르심을 따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름 받은 왕에게 충성하는 이는 왕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억되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 교회의 일꾼들에게 충성하는 것임을 잊지 말자. 이럴 때 중요한 것은 그 분이 진실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인지를 살피는 것이다. 어렵다!

13. 두 번째 삼인 그룹은 누구 누구인가?

아비새, 브나야 외 1명: 300대 1로 싸우는 게 그리 어렵지도 않았던 모양이다. 야소브암이 그러더니 아비새도 그랬다. 브나야도 무식하게 용감하기는 마찬가지다. 키가 다섯 규빗이면 2m30cm인데 그런 애굽인을 막대기로 툼벼서 이겼으니... 이런 사람이 끝까지 다윗 곁에서 시위대장으로 자리를 지켰다(삼하 20:23).

14. 용사의 명단 중에 알 만한 사람이 있는가? 전부 몇 명인가? 30명?

아사헬: 빠른 발만 믿고 무리하게 아브넬을 추격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삼하 2:18-23). 그 외에 후사 사람 십브개(삼하 21:18), 헛 사람 우리아(삼하 11:14-17)가 알 만한 사람이다.

48명: 원래 30용사단으로 만들었는데(삼하 23:24-39) 인원이 늘어난(41-47) 모양이다. 그래도 이름은 그대로 둔 경우일 것이다.

15. 역대기 기자는 다윗 왕조의 완전성과 탁월성을 강조하려고 사소한 일이나 불미스러운 일들은 생략해버렸다. 그 대신에 다윗 왕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음(3, 9-10, 14, 18-19): 결과적으로 국민적 합의에 따라 왕이 되었고(1-3), 수도 예루살렘을 확보했으며(4-8),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많이 있었다(11-47).

역대상 12 장

1.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을 것이라고 했지만 오랜 세월 사울에게 쫓기다가 겨우 시글락에(1년 4개월) 피해 있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니던 시절을 더듬어 보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란(1) 어떤 때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고난의 마무리 단계다: 곧 끝이 난다. 더구나 용사들이 찾아온다. 힘들고 어려운 때를 견디어 냈더니 진짜 용사들(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바로 이 전투에서 사울이 죽는다. 그리고 다윗은 유다지방의 왕이 되어 돌아온다(삼하 2:1-4)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더 참아야 한다.

2.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시점에서 보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란 과거의 일이다. 어려운 때에 그를 찾아와서 도운 자들이다. 찾아온 용사들을 몇 종류로 나눌 수 있는가?

4 종류: 베냐민 지파, 갓 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 므낫세 지파.

3. 베냐민 지파 사람이, 그것도 사울의 동족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 오는 것이 왜 쉽지 않을까?

동족에게 배신자로 찍힐 수도 있고,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다윗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다 사울의 실정이 계속되자 결단을 내렸을 것이다. 쉽지 않은 결단이다. 사울에게는 몰락의 전조요, 다윗에게는 소망의 메시지다. 사울은 있는 용사도 내어 쫓고, 도망가게 하고, 다윗은 사람을 받아들였다. 누가 번성할 것인지는 명약관화다.

4. 원래 베냐민 지파가 싸움에 능하다. 여기에 나오는 용사들의 모습을 요즈음 모습으로 바꾸면 어떤 까?

쌍권총을 든(=좌우 손을 놀려) 무적의 전사와 비슷할까? 온갖 신무기(=물매도, 살도)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용사인 셈이다.

5. 아무리 다윗의 시대라고 해도 그렇지 전임 왕을 무엇이라고?

기스의 아들 사울: 버림받은 왕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그렇다. 우리 느낌만 그런지도 모른다. 가 다윗을 보고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른 걸 보면 이게 그렇게 섭섭한 표현이 아닐 지도 모르겠다.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낮춘 적이 없었으니 역대기 기자가 그러한 모양이다.

6. 베냐민 지파 중에서 투항해온 용사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3) 나중에 삼십인의 두목이 되기는 이스마야다(4) 그런데 그 후에는 둘 다 별다른 기록이 없다. 아마 다른 더 뛰어난 용사들에게 자리를 내주었을 것이다. 이 무리들 중에서 훗날 누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는가?

야소브암(6): 첫 삼십인의 대장격이었다(11:11). 시글락으로 찾아올 때는 무리 중의 한 사람, 혹은 말단이었으나 훗날 큰 인물이 된 것이다.

7. '거친 땅 곱고한 곳'(8)은 '광야의 요새'라는 뜻이다. 어디일까?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다윗이 찾아다니던 광야의 은신처를 가리킨다: 일정한 곳이 아니라 사울을 피해 떠돌아다닐 때 찾아오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돌아온 자'라는 말에 주의해야 한다. 이들이 다윗을 떠났다가 다시 온 사람들이 아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온 자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비교적 초기에 다윗을 따랐던 셈이다. 시글락으로 찾아온 사람들은 거의 방랑 말기에 온 것이다.

8. 갓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위치와 자연환경을 비교해 보라.

갓 지파의 거주지는 요단 동편으로 넓은 목초지가 펼쳐진 곳이다. 목초지를 버리고 황량한 사막 가운데로 온 것이다. 도중에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15) 사울의 군대를 피해야 한다. 웬만한 열심과 소신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는 확신이 들면 드넓은 목초지를 떠나 광야라도 가야 한다. 결국은 이 광야가 영광스런 곳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9.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을 때는 따르는 무리들이 기껏해야 400, 혹은 600명이었다. 갓 자손들이 언제 100, 혹은 1000명을 관할했을까(14)?

이 기록이 후대의 내용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울의 부대에 있었을 때의 지위를 말하는 것이거나 또는 일당백, 혹은 일당천의 용사(=14절의 군대장관)이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10. 갓 사람들이 사자 같다는 것은 용맹하다는 뜻이다. 얼마나 용맹한가?

강물이 언덕에 넘칠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강을 건너 싸웠다(15): 사울의 군대를 물리치고 다윗에게 나아오려고 그랬는지 후대에 다른 민족과 싸운 얘기인지 분명하지는 않으나 그야말로 엄청난 용맹스러운 짓이다. 한니발이 코끼리를 몰고 알프스산맥을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왔다.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짓이었다. 갓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간 크기는 닮았다. 참고로 이스라엘은 지중해성 기후로 겨울에 비가 온다. 하필 이럴 때 강을 건너다니!

11. 그 옛날에도 위장귀순이 없었을 리가 없다. 맹세 하나로 믿을 수 있었을까?

위장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지도자에게는 필수적인 요소다: 이런 판단력이 흐려지면 사울이 되는 것이고 제대로 판단하면 다윗이 되는 것이다. 좀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성도인지 혹시 이단이나 사기 치러 오는 사람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짜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한데서 오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겉으로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척하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 하나로 신뢰할 수 있던 시절이 그림자다. 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를 치는 세상이 돼서!

12. 다윗이 사울을 치려한 적이 있었는가?

시냇만 네 적이 있다(삼상 28:1-2) 아기스는 다윗을 신임했지만 다른 방백들이 반대함으로 참전하지 못 했다(19). 돌아오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사울과 싸울 의사는 아예 없었다.

13.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에게 위로가 된 점은 무엇일까(20)?

시글락에 남겨둔 처자가 다 아말렉에게 포로로 잡혀갔을 때(삼상 30:1) 도우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20절의 '시글락으로 갈 때') 이들이 엄청나게 낙심한 다윗을 도와 도적떼를 쳤으니 특별히 더 고마웠 을 것이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때에 므낫세의 용사들이 다윗을 도왔다. 하필이면 이 때에?

14.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돕겠다고 찾아오는 바람에 다윗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단다. 사람들 이 찾아오는 것, 그것도 여러 지파에서! 정말 은혜다. 문제는 왜 시글락에 있을 때인가? 블레셋이 사울 을 치려할 때 인가? 사울이 전투에서 죽기 바로 직전이다.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한 때부터 시글락에서 용사들이 찾아온 때까지 기간이 결코 짧지 않다. 긴긴 수 련의 기간이 끝나면 그 동안의 수고가 빛을 발한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의 기 간을 지난 다음 사람을 보내주신다.

15.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용사요 군대장관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같았단다(22). 삼상 22:2에 의하면 이들은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빛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하는 데 왜 이렇게 표현이 다르지?

일반적으로 보면(과거지향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미래지향적인 눈으로) 보 면 용사다. 지난 과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들어 쓰실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시 말 하면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다윗 의 방랑 말기에 해당하고 삼상 22장의 표현은 좀 더 이른 시기의 대한 묘사일 수는 있으나 상당한 부 분이 겹치고 있으므로 이런 설명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16. 광야의 견고한 곳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고(8) 시글락으로 찾아온 용사도 있고(1) 시글락으로 갈 때 에(20) 찾아온 용사도 있다. 헤브론을 찾아온 사람은 뭐야?

왕의 즉위식을 위해서 모인 사람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7년 반을 지낸 후에 찾 아온 사람들이다. 광야의 견고한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이 가장 존중되어야 할 사람들이다.

17. 원래 모든 지파의 선봉에 선 지파는 유다였는데 유다 지파의 수가 다른 지파(30-37)에 비해서 턱없이 적다. 왜 그럴까?

유다 지파(시므온 지파도 포함)는 이미 다윗을 따르고 있었으니 별도로 즉위식을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말하자면 이 일을 주관하고 있으니(39절의 '형제')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18. 지파별로 보아서 제일 적은 인원이 참가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29): 여전히 사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탓이다. 28절의 사독과 장관은 레위 지파에 속한 다. 잇사갈 지파는 두목만 200명이니 그들이 관할하는 군사는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즉위식에 빠진 지파가 없다는 것은 이상적인 이스라엘이 세워졌다는 뜻이다.

19. 싸우러 가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모여 뭘 하는가?

일종의 열병식: 항오를(=伍와 列을) 정제히 했다(38)는 것은 국군의 날과 같은 행사에 퍼레이드를 하거 나 군인들이 질서정연한 모습으로 위력을 과시하는 행사를 진행했다는 뜻이다. 즉위식에서 가장 중요 한 행사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먹고 마시는 것이겠지만.

20. 즉위식을 치르고 먹고 마시니 기뻐했다는 것일까(40)?

아니다, 희락이 있었으니 먹고 마시면서 즐긴 것이다(원문에는 그 의미가 더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영 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셨다는 희락이 있었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지 먹고 마시는 잔치 때문에 즐거운 것 이 아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윗의 즉위식을 진정으로 기뻐했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역대상 13 장

1. 하나님의 궤를 백성의 한 가운데로 옮겨오는 일은 누가 봐도 당연한 일이지요, 좋은 일이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윗은 먼저 무슨 일에 신경을 쓰고 있는가(1-4)?

백성들의 마음을 구하는 일: 백성들이 기꺼이 다윗의 뜻에 따르도록 의논하고(1) 협조를 구한다(2) 지도자가 독단으로 처리하거나 백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추진해야 할 경우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백성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도자다. 더구나 여호와와 궤를 옮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다윗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온 백성의 일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백성들과 의논하고 뜻을 모은 것은 정말 잘한 일이다. 그럼에도 실패한 것은 결과적으로 더 중요한 것을 놓쳤다는 말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다(2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께 방법까지도 물었어야 했다.

3. 본문을 근거로 생각하면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것(신본주의)과 묻지 아니하는 것(결국 인본주의): 사울은 통치기간 내내 하나님의 궤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그게 다윗과 다른 점이다(삼상 14:18에서 단 한번 궤를 언급한 적이 있기는 함). 다윗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을 복되게 하는가(삼상 23:2, 30:8, 삼하 2:1, 5:19, 23)!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었다가 실패했다면 다윗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신본주의적 왕조였기에 가장 위대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다.

4. 이스라엘의 전국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는 말이 있다. 사무엘 시대의 이스라엘은 아주 좁은 지역이고 사울이 그렇게 확장시키지도 못한 것 같은데 다윗이 말하는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는 더 넓은 땅이다. 어떤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며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에게 나누어준 땅이다(민 34:5-8).

5. 다윗이나 백성들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한 흔적이 무엇인가?

새 수레(?)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주악하였다(8): 그럼에도 진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따로 있었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헛일이다. 선한 동기,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이라도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새 수레를 사용한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궤를 가져올 때 사용한 방식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80년 정도 지난 일인데 그것을 흉내냈다고보다는 단순하게 옮길 때의 편리함만 생각한 탓일 것이다. 의논을 천부장과 할 게 아니고 제사장과 했더라면 실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텐데...

6. 옳은 일이라고, 좋은 일이라고 함부로 행하지 않아야 한다. 더욱 조심하고 자세히 짚어가면서 해야 한다. 여호와와 궤를 운반하는데 첫 시도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15:2절을 참고하자?

메지 않고 수레로 옮긴 것(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지만): 5, 6절에 다윗이 메어 오려했는데 누가 수레에 실었나? 원문에는 메어 오려고 했다는 말이 없다. 그냥 옮겨오려고 한 걸로 돼 있다. 아마 번역자가 법궤의 이동에 따른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모양이다.

7. 웃사의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 회개할 기회나 생각해볼 여지도 없이 이렇게 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

원래 하나님의 거룩함에 손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즉각적인 것이었다. 어쩌면 범죄한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덕분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8. 원래 하나님의 궤를 모시는 임무를 맡은 사람은 엘르아살이었다(삼상 7:1). 그런데 왜 웃사가 수레를 물고 나올까?

웃사는 엘르아살의 아들일 것이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궤를 돌본 셈이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다.

9. 웃사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나곤의 타작마당이었는데(삼하 6:6) 여기서는 왜 기돈의 타작마당일까?

나곤(충돌)이나 기돈(재앙)이 둘 다 일반명사이거나 혹은 둘 중의 하나만 고유명사일 가능성이 있다.

10. 타작마당은 평탄한 곳임에 틀림없는데 왜 소가 뛰지?

하나님께서 마음이 편치 않으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물론 웃사나 다윗이 알아차리지는 못했던 일이다. 요나가 배를 타고 도망갈 때 풍랑이 일어나고 선장이 바울을 맡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계속하자 유라굴라가 닥친 것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짓을 하면 멀쩡하던 소가 뛰는 것이다.

11. 다윗이 분했다고?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분했다고?

자신을 향한 자책일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12)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품었을 리는 없다.

12. 오벧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면 아비나답의 집에는 왜 아무 말이 없지? 그 집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대략 다음과 같다. 70~80년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다.

- 1) 사무엘이 아직 어렸을 때부터 다윗이 왕으로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때까지 적어도 70년?
- 2) 삼상 7:1, 20년(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다윗이 쫓겨다니지 약 20년, 그 사이가 약 10년? 사울이 죽고 다윗이 나라를 안정시킨 때까지 약 20년?
- 3) 다윗이 왕이 된 것이 30세니까 이 때는 적어도 40은 넘었을 것, 사무엘과 다윗의 나이 차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아버지와 아들(요나단) 정도, 사무엘과 사울의 차이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약 2세대 정도의 차이가 있다.
- 4) 삼상 7:1, 20년(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울왕의 재위기간 40년(행 13:21), 다윗의 반쪽 왕 7년 6개월,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될 때까지 추가로 몇 년 더!
- 5) 사무엘이 어렸을 때 빼앗긴 궤가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돌아왔다. 사무엘이 몇 세까지 살았을까?

13. 웃사와 오벤에돔이 하나님의 궤를 취급하는 자세를 비교해 보자(삼상 7:1 ↔ 14)

웃사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집에 오랫동안 있었던 궤에 대하여 별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른다. 물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아버지의 책임이 더 클 것이다. 아비나답이 아들을 거룩히 구별했다는 것은 '이 일은 네가 맡으라'는 식으로 떠 넘겨버린 셈이다. 그런 일을 손자가 이어받았으니 두려워하거나 공경하려는 마음을 갖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반면에 오벤에돔은 웃사가 죽은 것을 보고 두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속과 함께 했다는 것은 기쁨으로 돌보았다는 말이다. 26:1-4에 보면 오벤에돔은 하나님의 궤를 매도록 임무를 받은 (가드림몬 사람)고핫의 자손이다. 아마 실수의 원인을 깨닫고 자신이 나섰을 수도 있다. 웃사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는 궤를 자기 집에 들이려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오벤에돔에게도 억지로 진 십자가였을 것이다. 매를 든 아버지일수록 그 다음에 더 잘 해주는 것을 아는가? 매를 던 것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란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제대로 된 부자지간이라면)

14.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는 수레에 싫어서 저절로 가도록 해도 별 일 없었는데 다윗의 경우에는 왜 안 되는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무슨 짓을 어떻게 하든 (물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많이 죽었지만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방법을 몰라서) 별 관계가 없으나 다윗의 경우는 내 자식이므로 내 법에 따라야 한다. 외부 활동에 아주 적극적인 어느 권사님이 생일을 맞았다. 신랑이 밖에서 축하해줄 사람이 하도 많으니 자기까지 나서서 귀찮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입으로 떼웠다가 혼이 났다. '다른 사람의 축하가 무슨 소용이냐?'고 난리가 났다.

역대상 14 장

1. 13장과 15장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다. 그런데 14장이 왜 들어왔을까?

변영하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넣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한 셈이다. 블레셋과 싸움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중에서 8절의 사건은 다윗의 즉위 초기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히람이 왕궁을 건축한 것은 다윗의 말기에 해당한다.

2.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히람이 왕궁을(1-2), 많은 자식들(3-6), 대적을 물리치심(8-17): 아들의 이름 중에 '나단'이 있다.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던 나단(삼하 12:1-15)의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붙일 수 있다는 것은 나단의 책망을 아주 고맙게 여겼다는 뜻이다. 범죄보다 더 귀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3.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위력을 떨치던 두로가 왜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는가?

다윗의 나라가 크게 강성했기 때문이다: 다윗 왕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했을 두로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재료와 기술자가 있으니 적절한 예를 표한 셈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하면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

4.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고?

이론적으로 아는 것은 오래 전이지만 이제 실제로 눈에 보인다는 말이다. 도무지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더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는 것이 눈에 보이더라는 말이다. 머리로 알던 맛을 입으로 보는 셈이다.

5.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하는가?

백성들을 위하여(2): 자고로 왕들은 백성이 자신을 위해서 있는 줄로 알았다. 루이 14세의 '짐이 국가다'라는 말이 대표적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나,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전부 자기 백성을 위한 것이다.

6.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섯 부인에게서 여섯 아들을 얻었다(3:1-4). 그런데 또 부인을 얻었다고?

고대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점에서는 당연한 일일지 모르나 신정국가의 왕으로서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그 집안에 엄청난 재앙이나 우환이 닥친다(왕상 11:3-15).

7.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어머니는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게 어머니를 알 만한 사람이 있는가?

솔로몬은 밋세바의 아들이 확실하다: 사실은 삼무아와 소밧과 나단과 솔로몬이 밋세바의 아들이다(3:5). 솔로몬은 밋세바의 첫 아들이 아니라 4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억하사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는 알 수 없다.

8.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찾으러 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전에 자기를 밑에서 망명 생활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알잡아 보는 말이다: 그 때는 다윗에게 편의를 제공한 이유가 이스라엘의 분열을 노렸기 때문이다. 이제는 더 강성해지기 전에 썩을 자르려는 것이다. 즉위 초기의 사건임에 틀림없다.

9. 적이 쳐들어 왔으면 당장 뛰어 가야 하는 것 아닐까? 싸우러 갈 건지 아닌지조차 물어봐야 할까(10, 14)? 다윗이 전투를 한 두 번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바로 그것이다: 매사를 하나님께 물어보고 움직이는 한 다윗의 사전에 패배란 없다. 다윗이 사울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께 물어보았기에 이긴 결과, 다윗의 군대가 강성해져서 이긴 결과?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법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다윗에게 강한 군사를 주시는 것이다. 매사에 이런 식이니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온 것이고, 용사들이 다윗을 따르며 강성해진 것이다.

10. 물을 쪼개다니(11)? '브라심'과 '베레스'(창 38:29)라는 이름은 원어상 같은 말이다. 터뜨린다는 뜻이다. 적군이 어떻게 되었다는 말인가?

가뭇둔 물이 터져서 흘러버리듯이 사라져 버렸다는 의미처럼 보인다. 마치 독이 터지거나 가족부대가 터져서 물이 다 빠져버리듯이!

11. 일반적인 경우라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우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승전 기념물로 보관한다: 그런데 다윗은 깨끗이 불살라 버렸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속이 시원했을 것이다. 오래 전 엘리 시대에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의 산당에 잡혀간 적이 있었다. 물론 그 때도 하나님의 궤가 위력을 발휘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이 위대하다고 큰 소리를 쳤다. 이제 그 우상이 깨끗하게 불살라진 것이다.

12. 어차피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싸우신다면(15) 굳이 작전(14)이 필요할까?

필요하다: 우리 생각에는 필요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만 믿고 자신이 해야 할 일까지 소홀히 하지 말라는 말씀 같다. 지난번의 대패를 만회하려고 대군을 이끌고 다시 왔을 것이다. 그러니 굳이 대군에 맞서서 싸우는 것보다는 우회해서 기습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데도 적절한 작전을 쓰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만용을 부리는 것과는 분명하게 다르다. 로마로 가려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고 격려했지만 그렇다고 콧가마를 타고 간 것이 아니다.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이 있음을 믿고 용기를

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차를 확 뺏아 버려? 대책도 없이 개업부터 하고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역대상 15 장

1. 사무엘하(삼하 6:12-15)와 비교해 보자. 여기에 있는 어떤 내용이 그 곳에는 없는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이 자세하지 않다: 오벧에돔의 집에서 궤를 옮긴 이유도 그 집에 내려진 복을 받으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한다는 신앙을 강조하는 셈이다.

2. 다윗 왕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장막을 새로 세웠단다(1).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로 만든 이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디에 있었기에 새로 만들었을까? (최소한 두 군데)

실로, 놈, 기브온: 성막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실로에 설치되었다가 엘리 제사장의 말기에 실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 후에 놈에 있었던 것 같은데(삼상 21장,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기럇여아림에 있고), 사울이 놈을 멸하고 난 후에 어떻게 기브온에 설치되어 있었는지는(대하 1:3) 알 수 없다.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기브온에 장막이 세워져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본떠서 세웠음이 틀림없다.

3. 법궤가 무엇이기에 다윗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는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는 조각목(아카시아 나무)에 금으로 입혀서 만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 속에 있는 돌판(십계명)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쓰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금 상자, 법궤가 없는 성전, 말씀이 없는 교회... 다 소용없는 것이다. 법궤가 없는 예루살렘이라면 나라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이렇게 수고를 했을 것이다.

4. 옷사의 일을 겪은 다음에야 알게 된 사실은 무엇인가?

인약궤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향(=그향) 자손만이 메고 운반해야 한다는 것(민 4:15, 7:9): 미리 잘 좀 알아보고 했더라면 옷사의 불행은 없었을 것 아닐까? 가까운 제사장들 중에서 이 사실을 미리 안 사람은 없었을까? 이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것도 복이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식이다.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도 그랬다! 열심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실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는 없다. 역사에서 교훈을 받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가! 아무나 궤를 뭍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직분을 허락한 대로 해야 할 뿐이다.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5. 5절의 우리엘 뿐만 아니라 8-10절의 엘리사반(옷시엘의 아들), 헤브론, 옷시엘도 그향 자손이다(출 6:18-22). 온통 그향 자손들 판이네?

법궤를 옮기는 일은 그향 자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성막은 조립식 건물이다. 이동을 위해서 해체하면 3부분으로, 즉 벽과 휘장과 기구들로 나뉜다.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게르숨)은 휘장, 그향(=고향)은 기구, 므라리는 벽체를 운반하는 임무를 각각 맡았다(민 3장)

6.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후손이 없을 것이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엘리의 후손이다. 누구일까?

아비아달: 그래서 대제사장의 계보(6:1-15)에 아비아달은 나오지 않는다. 다윗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도움을 주었던 놈의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이지만 솔로몬의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아도니아의 반역을 지지한 일(왕상 1장)로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엘리에게 내린 저주가 이 때에 다 이루어졌다. 그렇다고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을 빼앗긴 것을 엘리 탓이라고 할 수 없다. 자신의 그릇된 판단 탓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인간의 선택이 별 개의 것이면서도 사실은 하나다. 예술이다! 돌이면서 하나!

7. '전에'란 언제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는가(13)?

옷사가 죽던 때를 가리킨다. 하나님께서 옷사에게 충돌하셨지만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충돌하신 것으로 알았다. 비록 옷사가 죽었지만 자신의 잘못이요, 자신이 죽어야 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대단한 깨달음이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이다.

8. 여호와와 궤는 반드시 고향 자손이 메고 운반해야 했다. 어떻게 메었을까?

채로 꿰어 어깨에 뻐다(15): 그래서 성막의 성물은 모퉁이에 채를 꿰는 고리가 달려 있었다. 만들 때부터 전혀 손을 대지 않아도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라고 하셨다.

9.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데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한가?

궤를 댈 레위 사람(11-12), 노래하는 자(두목 그나냐)와 악기 연주자(16-21), 문지기, 그리고 제사장들이다(앞에서 나팔과 '각'을 부는 사람, 28, 24, 수 6:4)

10.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데 문지기는 왜 필요할까(18, 23, 24)?

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이었을 것이다(23절 참고). 문지기면서 연주도 했다.

11. 노래하는 자와 연주자를 지휘하는 사람이 셋이다(17, 19, 가운데: 헤만 6:33, 우: 아삽 6:39, 좌: 에단 6:44). 그러나 오늘날의 오케스트라나 교향악처럼 지휘봉으로 지휘하는 것은 아니다. 무엇으로 지휘하는 셈인가?

제금(심벌즈, 혹은 징): 이걸 크게 울려서 박자를 맞춘 셈이다. 우리나라의 상쇠가 팽과리를 치거나 드럼이 박자를 잡아주는 것과 비슷하겠다.

12. 다윗이 그 옛날에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왜 훗날 교회당에서 악기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 혹은 어떤 악기는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가 되었을까?

글씨 말이다, 뚱고집 때문 아닐까? 무악기파와 악기파로 갈라진 적도 있었단다.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당에서 기타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마도 기타가 솔집이나 유행가의 반주로 널리 쓰였기 때문일 것이다. 드럼도 예배당에 그리 쉽게 들어온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다윗은 율법에 없는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을 하지 않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는 마음이 있다면 악기나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13. 여창에 맞추는 자란 여자의 소리, 즉 소프라노로 노래했다는 말이다(=시 46편의 알라뭇). 그러면 여덟째 음에 맞추어 하는 노래는 무엇을 의미할까?

남자의 소리겠지(시편 6편의 스미닛): 그러니까 2성부 합창이고, 비파는 높은 음을 내고 수금(수금)은 저음을 내는 악기다. 제금은 박자를 맞추는 타악기이고.

14. 지휘자가 있고 노래하는 연주자가 있는 데 왜 족장이 노래를 가르치나(22)?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노래'로 번역된 말의 본뜻은 '들어올림'이다. 드물게 목청을 높여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도 쓰이지만 대부분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메는 의미로 쓰였다. 만약 그나냐가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일을 했다는 의미일까(27절에 '노래하는 자'가 중복이 된 점도 참고로 하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의 책임자'로 보는 것이 타당! 그 당시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옷사가 이걸 몰라서 비극을 당했다. 언약궤가 기랴여아림에 들어온 지 거의 80년이 되도록 메고 운반한 적이 없었으니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이다. 대상 26:29에 그나냐와 그 아들들은 예배보다는 바깥일을 맡았다'고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15. 레위 사람들이 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도와 주셨을까(26)?

옷사처럼 죽지 않고 무사히 운반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운반하는 일보다 그것을 받아주시는 일이 훨씬 큰 도움이다. 받아주시지 않으면 모든 일이 허사인 걸! 우리는 우리의 헌신의 크기를 재는 버릇이 있다. 헌신하는 것을 기뻐해주시는 그 분의 은혜가 더 큰 것인 줄 모른 채!

16. 예복은 제사장의 겔옷인데 왜 다윗이 입었을까?

여기 예복은 제사장의 복장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간단한 의복으로, 소년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서 이것을 착용했다(삼상 2:18). 봉사하는 사람의 복장이다. 왕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입었다. 하나님 앞에 왕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싶기 때문이다. 왕이 이렇게 큰 행사에서 평상복을 입은 것이나 채신머리없이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17.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데에 동원된 악기는 전부 몇 종류인가?

사지: 각과 나팔은 제사장이 부는 것이며, 제금과 비파와 수금(수금)은 찬양대가 쓰는 것이다.

18. 이렇게 좋은 날에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기준(가치관)이 다르면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는 하찮은 일이다. 몸은 교회에, 마음은 세상에! 최고의 불행이다!

19. 미갈은 다윗의 아내인가 사울의 딸인가?

이제는 당연히 다윗의 아내여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사울의 딸이라니! 이제는 사울의 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아내로 살아야 한다. 그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아야 한다. 시집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치관이 일치해야 한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언약궤의 중요성을 모른 탓도 있었을 것이다, 자기 아버지도 그랬으니!

20.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하실 곳을 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신 12:5, 17:8). 언제 어떻게 그 장소를 정하셨는가?

하나님을 진실 되게 섬기는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신지(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 거의 400년 만에 다윗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다. 여부스인들은 여부스인들 대로, 다윗은 다윗 대로 이 성읍의 중요성을 알고 차지했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래 전에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엄두에 두셨다(창 22:2). 하나님은 진실 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

역대상 16 장

1. 사울이 다급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가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란 책망을 들었다(삼상 13:11-13). 그런데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까지 했는데 괜찮을까?
다윗이 직접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드렸다: 누구라도 당연히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문제는 사울이 이상한 짓을 했을 뿐이다.
2.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행사에 참가한 백성들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열매 과자와 건포도 과자를 하나씩 나누어 준 것은 너무 약소하지 않은가? 오래 보관할 기념품이 낫지 않을까?
화목제에 동참하는 것이다: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모두가 함께 음식을 나누었다.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에 동참하는 행위다. 성찬식에서 포도주와 떡은 작고 크고의 문제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3. 찬양대를 또 세웠네? 앞에서 임명을 다 했는데(15:16-21)?
앞에서 임명한 것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는 동안만 유효한 모양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임명하는 것이 정식 찬양대인 셈이다.
4. 이전에는 지휘자가 세 사람이었는데(15:17-19) 이제는 누구인가?
아삽(5, 37): 제사장이 섬겨야 할 곳이 두 곳이 되는 바람에 찬양대도 두 곳으로 나누어진 탓이다. 사독 제사장이 섬기게 된 기브온 산당에는 해만이 지휘자가 되었다(41-42). 집에서 궤를 모시고 있던 오벧에돔은 궤가 있는 곳에, 여두둔의 아들 오벧에돔은 아버지가 찬양하던 기브온 산당에서(42) 봉사했을 것이다.
5. 요즈음 찬양대는 지휘봉을 쓰거나 아니면 손을 이용하여 지휘한다. 다윗의 찬양대는 무엇으로 지휘를 하는가?
제금(5): 일종의 심벌즈다. 우리나라의 상쇠가 팽과리를 치거나 드럼이 박자를 잡아주는 것과 비슷하다.
6. 다윗은 찬양대가 없던 시절에 찬양대를 조직하고 각종 악기를 총동원하여 찬양을 하게 한 셈이다(5-6). 그런데 훗날 어떻게 교회 역사에 무악기파가 등장하게 됐을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원리를 무리하게 강조하다보니 그렇게 된 모양이다. 초대교회에는 악기가 없었다고 해도 다윗시대에는 있었는데...
7. 8절부터는 아무래도 시편이다. 시편에 있지 않을까? 관주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8-22절은 시 105:1-15와 같다. 23-33절은 시 96편과 거의 같은 내용이다. 34-36절도 부분적으로는 시 106:1, 47, 48에 있다.
8. 정말 위대한 아버지(혹은 형제)가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버지에게는 감사, 찬송, 이웃에게는 자랑(=알리고, 전하는 것)하는 것(8, 9, 10)이 당연하다. 명의, 명연 주자, 천재... 가 아는 사람 중에 있거나 곁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하물며 천지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9. 8-13에는 동사가 굉장히 많다. '감사하라, 부르라, 알리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전하라, 자랑하라, 구하라, 즐거워하라, 찾으라, 기억하라.'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즐거우면 감사하고, 이름을 부르며, 자랑하게 된다. 즐거우면 오래 기억하는 법이다. 공부도 천재보다 무서운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고, 열심히보다 무서운 것이 즐거운 것이다.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10. 그 분을 자랑하는데 왜 마음이 즐겁지(10)?
나와 상관이 있다는 뜻이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 자랑할 만한 일을 한다면 시기가 나거나 부러울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가 큰일을 행하셨고 위대한 일을 하셨으면 나도 즐거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 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의 하나다.
11. 언제까지 위대한 아버지를 자랑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제는 내 차례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호와를 구하고 찾으라(11), 언약을 기억하라(12, 15): 여호와를 나의 삶의 근거로 삼고 그 분의 능력과 도움을 받아 일어서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에 행하신 그 분의 일을 기억하며(12, 15) 내 발로 서야 한다.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복되다. 이런 체험이 없다면? 말씀대로 살면서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12. 8-22절을 두 문단으로 나누고 각 문단의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기뻐하라(8-13), 감사하라(14-22)
13. 8-22절을 예배의 순서였다고 생각하고 다음 각 구절을 한 단어로 정리해 보자.
1) 8-10: _____ 2) 11-13: _____ 3) 14-18: _____ 4) 19-22: _____ 5) 23-33: _____ 6) 34-36: _____
1) 감사(입례송), 2) 기원, 3) 언약, 4) 보호, 5) 구원, 6) 송영
14.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지키셨는가?
내용: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아브라함에게 창 15:7, 17:8, 이삭에게 창 26:2-4, 야곱에게 28:13-15, 35:12)
이행: 이스라엘이 스스로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어 이리 저리 유랑할 때도 지켜주셨다. 대표적인 경우

가 애굽의 바로(아브라함), 그랄 왕 아비멜렉(아브라함, 이삭), 에서와 라반에게서(야곱) 구원을 받았다.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의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들의 이런 모습은 결국 성도는 이 땅에서 나 그네의 삶을 살다가 진정한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15.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는 누구며,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인가(14-22)?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제로 기름 부은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 부르신 것은 훗날 기름 부어 성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이렇게 불렀을 것이다. 선지자라는 표현도 마찬가지다. 누가 선지자로 임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이 선지자의 삶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16. 이 찬송(23-33)의 핵심은 선포, 경외, 찬양, 경배, 기쁨 중에 어느 것일까?

선포: 온 땅은 선포의 주체이고 모든 민족과 만민은 선포의 대상이다. 찬양과 경외, 경배는 선포의 방법이고, 기쁨은 선포하는 자의 마음 자세다.

17. 선포되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위대하고(25) 능력이 있으신 분(26):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제물을 드려야 한다(28).

18.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텐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가?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벌 받을 자를 벌하실 것이기에! 죄인이 아닌 애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든 성도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떠는 것이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다(30).

19.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 그 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34-35). 과거에는 애굽에서, 최근에는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분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 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34):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러니 더욱 감사하는 것이다.

20. 여호와와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15:1-3, 16:37) 기브온 산당의 여호와와 성막(39)은 또 뭐야?

예루살렘에는 임시로 언약궤를 모실 처소를 만들었고 기브온에는 성막이 세워져 있었다: 엘리시대에 실로에 있던 성막은 파괴되고(렘 7:2, 26:6, 9) 후에 놉에 성막을 세웠다가(삼상 21:1) 기브온에 옮긴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다윗 시대에는 제사장이 둘이 필요했다. 훗날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을 보아 기브온 산당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번제단도 기브온에 있었던 모양이다.

21. 제사를 드리려고 제물을 준비해서 왔는데 제물을 드리려는 번제단에 이미 제물이 타고 있다(40). 그러면 어떻게 하지? 치우고 새로 올려야 하지 않았을까?

아침저녁으로 드리는 번제는 결코 끊이지 않는다. 새로운 불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번제물 위에 자기 제물을 올려야 한다(레 6:12, 9:17). 기존의 번제물이 없으면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상번제 제물)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우리가 드리는 제물) 그냥 묻어서 갈뿐임을 잘 보여준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렇다(계 8:3-4)

22.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표현을 본문에서 하나 골라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음(40):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비록 실수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살핀 것이 그의 인생을 가장 위하게 만든 것이다. 원수가 된 사울조차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자신은 손을 대지 않겠다고 하는 다윗이었으니 성막을 세우고 수종자를 세울 때도 자신의 생각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역대상 17 장

1.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좋은 곳에 두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 그리 칭찬 받을 만한 행위가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자기 집부터 먼저 잘 짓고 평안해지니까(1) 생각이 났다.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지어야 하는데? 뼈뺏하게 보면 그렇고 달리 생각해 보면 모든 대적을 파한 후에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려울 때보다는 평안할 때 신앙을 잃어버리는 예가 더 많다. 다윗의 위대함은 어려울 때나 평화로울 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점이다. 모든 대적이 사라지고 잘 먹고, 잘 살 때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생각을 한 것이다.

2. 당시에 블레셋은 3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신전이 있었다. 그런데 천지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집은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지난 400년 동안 이리 저리 떠돌아 다녔다(5). 더구나 휘장 아래 있었다(1). 집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이지 않지만 어떻게 이룰 수가? 후일에 솔로몬이 황금으로 된 집을 짓고도 하나님께서 거하실만한 곳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하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룰 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드려야 한다. 마음을 하나님께 비워드려야 한다. 정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은 자녀의 마음이니까!

3. 나단은 다윗의 중요한 일에 늘 함께 했던 신실한 선지자였다. 그런데 여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다윗의 제안을 듣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즉시 자신의 말을 바꾸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도, 또 너무나 당연한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한다.

4. 다윗의 그런 소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척 기뻐했던 것 같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이 무척 많아졌으니 말이다(4-14): 다윗은 겨우 한 마디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말씀이 많으신가?

5.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결국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는가?

내가 네 나라를 세워주겠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작은 것(성전, 결코 작은 것이 아니지만)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의 집(왕조)을 영구히 세워주겠다고 하신다. 그러면 백성들도 그 집에 거하게 된다. 이 영원한 다윗의 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다윗의 그런 소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뜻은 고맙다. 받은 것으로 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신 셈이다.

6. 다윗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시려는 복은 무엇인가?

이름을 끈끈케 만들어 주심, 집을 세우심, 나라를 평안케 하심, 후사를 왕으로 세움,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그래도 결국 망하지 않았는가?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는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가 수없이 바뀌지만(253년간 평균 30년 미만)의 9왕조, 19왕) 남쪽 유다는 다윗 왕조로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간다(479년간). 한 왕조를 100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간 점에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끝내는 바벨론에 망하고 만다. 그렇다면 위가 영원하리란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론에 의하여 끝나버리는가?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서 다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영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다윗(주전1055-1015) 솔로몬(1015-975): 초대 세 왕은 각각 40년씩

분열왕국시대(975-722: 253년간), 유다만 그 후 136년 더 존속,

다윗왕조는 80+253+136=479, 북쪽 이스라엘은 253년간 9왕조, 평균 30년 미만

7.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창 12)과 비교하면 어떤가?

좀 더 구체화 되었지만 내용상 동일하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 복을 약속하셨다.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라는 말씀은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다윗에게 베푸시는 은혜도 결국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8. 다윗이나 선지자 나단이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나단이 선뜻 동의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책망하시는 것 같다. 지금은 여호와와 집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을 짓는 것보다 먼저 하려고 하시는 것을 여러 가지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 것(10, 14): 핵심은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견고케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그것을 위하여 다윗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자연스럽게 평안(=안식을 누리)게 된다. 아무리 왕권이 강화되었다 해도 왕위계승이 자연스럽게 못하면 나라가 견고하지 못하다. 왕권이 흔들리는 증거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이기도 하다.

9. 다윗의 기도를(16-27) 1) 세 부분으로 나누고, 2) 각 부분에 적당한 제목을 붙여보자. 3) 각 부분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1) 감사(16-19): 베풀어주신 것만도 과한데 또 장래의 일까지 축복하십니까?

2) 찬양(20-22):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3) 간구(23-27): 말씀하신 대로 하옵소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10. 다윗의 이 기도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조금은 문제성이 있는 기도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기도한다는 것이다: 주의 뜻대로(19), 말씀하신 대로(23),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들게 하셨으므로(25) 기도하는 것이다.

11. 다윗이 생각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주 앞에 영원히 있는 것(27, 시 23:6 참조)

12. 다윗과 바울의 신앙과 삶을 비교해서 글로 쓰려고 미리 정해 놓은 제목이 '다윗의 연애, 바울의 짝사랑'이다. 어떤 의도에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본문을 참고로 설명해 보자.

바울의 짝사랑: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은 인생의 재미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다.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온갖 고난을 자초했을 뿐이다. 하나님을 좋아해서 그의 전 인생을 다 바쳤지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별로 주시지 않았다. 바울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느낀 것은 아니다. 영적으로 한없는 기쁨을 누렸으나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여야지.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우리 눈에 그렇다는 말이다.

다윗의 연애: 반면에 다윗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른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으니깐. 그러나 실수도 많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별 것 아닌 선물에 과(?)하게 축복을 하시는 것 같다. 어쨌든 다윗은 엄청난 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됐으니 말이다. 조그마한 선물에 온통 감격하여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는 모습이랄까?

13.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 친밀한 것 같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께서도 선지자의 일과 왕의 일을 존중하고 있음.

14. 본문에 나오는 여러 종류의 집 중에서 1) 가장 큰 집은? 2) 가장 초라하다는 뜻으로 쓰인 집은? 3) 가장 갖고 싶은 집은?

1) 내 집(14): 하나님의 집이니깐! 이 집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다.

2) 취장(1) = 장막 = 성막(5)

3) 다윗의 집(16): 내 집은 내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며 27절의 '종의 집'도 마찬가지다(해정은 이것을 의역하여 종의 왕조라고 번역함).

역대상 18 장

1. 대상은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주제(사건)별로 정리한 것과 비슷하다. 그 좋은 예가 본문이다. 왜 그런가?

전장의 다윗 언약은 다윗이 사방의 대적을 다 파한 후(14:17),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임한 언약이기 때문이다(삼하 7:1). 1절의 '그 후에'란 말은 시간의 전후를 연결하기도 하고 서로 다른 주제를 연결하기도 하는 접속사다.

2. 다윗의 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 블레셋, 모압, 소바(다메섹)는 각각 서, 동,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다. 그런데 병거를 빼앗아 밭의 힘줄을 왜 끊었을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신 17:16): 오래 전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순종한 적이 있는데(수 11:9), 다윗이 이렇게 행한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했을까? 힘줄을 끊으면 밭을 수는 있으나 달리지는 못한다.

3. 없애려면 다 없애지 병거 백대의 말은 남겼네? 욕심이 조금 남아서?

욕심 때문이라면 다 남기지 1/10만 남겼을 리가 없다. 전쟁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쓸 생각이었겠지!

4.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6, 13)는 것은 다윗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란 말인데 다른 사사나 사울도 있었는데 유독 다윗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기 때문: 그렇다고 이 말이 전적으로 다윗에게 공을 돌리는 말은 아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계획에 적절한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부르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5. 오랜 세월 블레셋에 압제를 당했는데 오히려 정복을 하다니! 심지어 아람에 수비대를 두다니(16)?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종살이 하던 사람이 종을 부리는 격이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 다윗의 등장 때문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게 하셨는지도 생각해야 한다.

6. 금방패를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을까?

전투용은 아닐 테니 장식용이거나 신분에 따른 왕의 하사품일 게다: 그런 금방패를 빼앗아왔다는 것은 아람을 완전하게 정복했다는 말이다.

7. 다윗의 기사에 솔로몬이 왜 등장하는가?

훗날의 일을 미리 당겨 쓴 것이다: 다윗이 빼앗아 온 놋을 훗날 솔로몬이 성전기구를 만드는데 사용했다는 말이다.

8. 하맛도 아람의 소국인데 왜 다윗의 승리를 기뻐하는가?

경쟁상대(소바, 다메섹)를 눌렀기 때문이다: 하맛은 왜 경쟁상대이던 동쪽을 누른 이방쪽을 기뻐하는가? 동쪽에게 점령당하기보다는 이방쪽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10)이 나은 모양이다.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고대에는 왕의 입장이 곧 백성의 입장이니 당연하다. 오늘날 백성이나 민족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입장으로 보면 민족의 배신자가 될 수도 있는 일이다.

9. 다윗이 사방의 모든 나라를 다 정벌한 셈이다. 에돔, 모압, 암몬은 어디에 있던 나라인가?

요단강 동편, 즉 사해 동편의 남에서 북쪽으로 위치해 있다. 에돔이 제일 아래쪽(남남동), 세렛 시내를 건너 모압(남동), 아르논 강(모압과 암몬의 경계)을 건너 암몬(동)이 있다.

10. 다윗이 이렇게 주변의 모든 나라를 순식간에 정복하게 된 것은 그만큼 다윗의 능력이 출중하였기 때문일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다(13): 다윗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더 주목해야 한다. 사실은 아브람을 불러내실 때부터 이 땅을 후손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그 약속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다. '이 땅을 주기는 쥐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줄까?' 하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 다윗의 수고와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신 11:22-25의 성취다.

11.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혹은 왕이 해야 할 일에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무엇일까?

재판(인사도 포함해서)을 공정하게 하는 것: 다윗이 정의(미쉬파트: 판결)와 공의(궤다카: 의)를 행했다는 것은 재판을 공정하게 했다는 말이다. 그래야 법과 질서가 살고 공정한(공평한) 나라가 만들어진다. 이게 안 되면 어떤 나라도 제대로 설 수 없다. 인사를 공정하게 하는 것(15-17)도 여기에 포함되는 일이다. 사람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했다는 말이다.

12. 요압은 문제가 적지 않은 사람이었다(삼하 3:26-27). 그럼에도 군대장관이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

예루살렘을 정복한 공로가 있다(11:6): 훗날 다윗도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참으로 부담스러운 인물이었다(삼하 3:29, 18:9-17, 왕상 2:5-6). 그러나 역량으로는 군대장관에 적합한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다.

13. 우리가 아는 대로는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독과 아히멜렉이다(삼하 8:17, 대상 24:6). 여기에는 왜 그 이름이 없지?

아비멜렉(16)은 아히멜렉은 오기(誤記)다: 필사자의 오기임이 틀림없음에도 번역할 때나 옮겨 쓸 때 함부로 고치지 않았다. 본문을 그대로 전승하려는 노력 때문이다.

14.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왕의 친위대로서 왕명(사형 집행, 파발)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다. 이 기관의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다윗의 곁을 지킨 사람은 브나야다. 마지막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 왕상 1-2장을 보고 정돈해 보자.

다윗왕의 명을 받들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왕상 1:10, 38)과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일(왕상 2:25, 29-34, 46)에 헌신했다.

역대상 19 장

1. 압몬이 앞에서 점령되지 않았나(18:11)?

그 후에(1)란 말이 우리말과 달리 반드시 시간적인 전후관계를 뜻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상이한 문맥을 이어주는 역할만 한다. 말하자면 말과 말 사이에 별 의미없이 들어오는 관투사 같은 셈이다. 19장에서 압몬 뿐 아니라 아람 족속들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은 18장의 정복전쟁 이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이 주변 국가들과 전쟁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

2. 나하스가 누구이기에 다윗이 호의를 베푼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까?

사울에게 패한 적이 있는 압몬 왕이다(삼상 11:1-11). 아마도 사울에게 패한 후에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을 동정해서(동병상련) 도와주지 않았을까?

3. 다윗의 호의를 압몬의 방백들은 왜 오해한 걸까?

한창 뻘어나가던 다윗의 힘이 두려웠을 것: 과도한 두려움이 오히려 허세를 부리게 한다. 거기다가 막강한 경제력이 있어서(6) 교만했던 것 같다. 압몬의 방백들이 지혜로웠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국가 관에는 우정이나 의리란 것이 존재하기 정말 어렵다. 왕과 왕 사이에 어떤 우정이나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개인적인 관계일 뿐이다. 주변의 신하들이 서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면 가능성은 하겠지만 극히 어려운 일이다.

4. 진짜 정탐꾼이라면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망신만 줘서 쫓아보내는 것도 어리석은 짓 아닌가?

고대에 수염을 자른 행위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수치다. 고려시대에 무인의 난이 일어난 원인 중에는 문신들이 무신의 수염을 깎드린 탓도 있다. 중동불기까지 잘랐다는 것은 발가벗겨 쫓아낸 것이나 마찬가지다. 왕의 사신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은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5. 왕의 특사로 갔다가 이런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어떻게 돌보았는가?

왕이 신하들의 수치를 감취주었다. 여리고에서 수염이 자라도록 기다리라고 한 것은 그들의 지위와 명예를 지켜준 셈이다.

6. 괜히 조문 사절을 건드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 용병을 고용하다니? 은 1000달란트면 약 34톤이다.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만용? 솔로몬의 아들 로호보암 생각이 난다. 쓸데없는 혈기는 용기가 아니다. 덕분에 다윗은 여러 나라를 한꺼번에 점령할 기회를 얻었네! 은 1달란트는 6000드라크마, 1드라크마는 하루 품삤이다. 일당을 7만원으로 가정하면 4천2백억원이다. 압몬은 경제력을 믿고 큰 소리를 쳤나보다. 돈은 있는데 힘은 없다. 이게 무너지려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인지를 잘 몰랐던 모양이다. 아람군대가 사라진 후에 압몬의 처지는? 스스로를 지켜낼 힘을 스스로 가지지 못하면 사상누각이다.

7. 압몬 사람과 용병으로 불러온 아람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셀까?

아람: 요압이 군사를 배치하는 것을 보면 아람 군대를 더 경계하기 때문이다. 압몬의 사정이 이러하다면 애당초에 도전하는 것이 잘못이다. 자기보다 더 센 용병을 데려오면 나중에 이겨도 후환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용병들이 사력을 다 해서 싸워줄까?

8. 요압이 아비새에게 하는 말(13)을 보면 대단히 신앙적이다. 훗날 그의 행적을 보면 그리 신앙적이지는 않던데?

순수한 신앙이 권력에 눈이 멀어 변질 된 것 아닐까? 순수한 신앙과 모략 사이를 왔다갔다 한 사람이다.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려고 할 때 말리는 것을 보면(삼하 24:3) 꽤 신앙적이긴 한데 우리야를 죽이라는 말에 군말없이 순종하기도 하고(삼하 11:14-21) 장차 정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아브넬, 아마사)을 무참하게 살해했다(삼하 3:27, 삼하 20:8-10). 다윗에게도 버거운 상대였다(삼상 2:5-6). 다윗이 어릴 적 순수한 신앙을 거의 일평생 유지했다면 요압은 분명히 때가 많이 묻었다. 좋은 신앙을 순수하게 유지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9. 용병들이 도망하고 압몬 자손도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왜 그냥 돌아오지? 20:1절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자.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운 계절이 왔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랍바성이 공략하기 쉽지 않은 집과(삼하 11:1, 11, 17) 물러난 아람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도 고려해야 했을 것이다.

10. 용병으로 왔던 아람 사람들(아람 나하라임과 아람마아가와 소바)도 독이 올랐나보다. 아람의 본진(강 건너 아람 사람)을 불러다가 싸울 생각이다. 핵심 인물은 하닷에셀이었던 모양이다. 남의 전쟁에 왜 이렇게 열을 낼까?

지난 번 전투의 패배(18:3-10)를 만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것이다. 확장되어가는 다윗을 견제해야 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람은 더 이상 다윗과 싸우기를 포기해버렸다. 이제는 압몬 차례다.

역대상 20 장

1. 해가 바뀌는 것이 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는 결과(삼하 11:1, 왕상 20:22, 20:26, 왕하 13:20)?

겨울의 우기가 지나고 고기가 왔다는 뜻이다: 지금이야 전천후 전투가 가능하고 오히려 악천후를 이용하여 기습작전을 펴기도 하지만 고대에는 이런 기후를 이겨낼 장사가 없었다.

2. 결국 암몬은 다윗의 수중에 떨어지고 말았다. 왕관이 금 한 달란트(34kg)라고?

머리에 쓰기에는 너무 무겁다. 의식 때에 형식적으로 쓰거나 과시용 아닐까? 여차피 경제력은 있었으니 까! 힘이 없는 자존심과 허세는 전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암몬 왕 하논은 왕관의 무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힘을 기르고 상대의 의도와 중심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했다.

3. 암몬 백성들이 톱과 쇠도끼와 들썰래로 일하게 된 것은 무엇의 댓가인가?

다윗 왕의 사신들을 모욕한 댓가: 어리석은 판단에 대해서 혹독한 댓가를 치렀다. 그래서 못 생긴 사람하고는 살아도 머리 나쁜 사람하고는 못 살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밀공을 숭배하느라고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우던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은 것이다.

4.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표현은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일일까?

밋세바와 곤통한 일: 다윗의 유명한 범죄 사건인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21장의 범죄 사건은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밋세바 사건은 개인적인 범죄이고 인구조사는 왕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무엘하의 기록을 보면 개인적인 범죄는 다윗의 가정에 슬픔과 비극을 가져오고 직무와 관련된 범죄는 국가적인 고통을 초래했다. 큰 틀에서 보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어두웠던 과거는 대체로 생략하고 있다.

5.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할까(4-8)? 누구를 닮았는가?

골리앗을 친 다윗: 한번이라도 본 것이 있으면 같은 일이 또 일어난다. 첫 모범이 그래서 중요하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보여준 용맹은 다윗의 신하들에게도 전수되었다. 다윗이 용맹하니 신하들도 용맹하다. 전쟁의 승패는 큰 키에 있지 않다. 누가 대장이냐에 달려 있다.

6. 다윗의 부하들은 보통 체구를 한 자들이었지만, 가드의 장대한 자들에게 무서운 적수가 되었다.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스라엘을 능욕했으므로, 7) 하나님은 옛날 대홍수 때 행하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장대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거만한 자들을 낮추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원수들의 키(능력과 자금)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이상,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유력한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역대상 21 장

1.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다니(참고, 삼하 24:1)?

다윗이 잠시 하나님을 잊고 영동한 욕심에 사로잡힌 탓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온 다윗이 그 결과에 취하여 하나님 대신 자신의 병력에 눈을 돌렸기 때문에 사탄이 틈을 탄 것이다. 다윗이 사탄에게 틈을 준 것이다. 먹고 살만하게 되자 통장의 잔고를 세며 흐뭇해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제발 까불지 말자.

삼하 24:1절을 참고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생각이 든 것이고 사탄이 이런 기회를 타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신 것이다. 아마도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동조하여 나라를 어지럽게 한 일에 대한 징계가 아닐까?

2. 백성을 계수하는 것이 잘못인가? 심지어 요압이 말리는 것(3)을 보면 그런 것 같은데?

원래 합법적인 인구조사는 제사장이 하고 속전을 내도록 되어 있다(민 1:3, 26:1-2, 출 30:2).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다윗은 자기 군사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고, 제사장 대신 군대장관을 동원하여 인구를 조사하였다. 전쟁터에서 실전을 계속하는 장군이 오히려 군사 숫자에 무심한 것이 이상하게 여겨지지만 전투의 현장에서는 결코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이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을 요압도 알았다. 그래서 왕을 말리는 것을 보면 요압도 대단한 충신인데 나중에 보면 좀 다르단 말이야! 현명한 다윗이 여기서는 신하의 충언을 듣지 않는다!

3.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이란 지금 말로 하면 국방장관이나 군의 총책임자다. 이런 분들이 자리를 비우고 지방을 돌아다니며 한가로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을까? (삼하 24:8을 보면 거의 열 달이 걸려 인구조사가 완료되었다.)

모든 전투가 다 끝나고 평온한 시기이었다는 뜻이다: 평안하고 여유로울 때가 되면 그 동안의 업적을 뒤돌아보게 된다. 이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감사가 나오겠지만 자신이 고개를 들면 사탄이 설치게 된다. 자기가 잘 나서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진 것이 아님을 잘 알 텐데... 잘 먹고 잘 살 때 특히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4. 우리나라 전국을 가리킬 때는 흔히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브엘세바는 남쪽 경계, 단은 북쪽 경계다.

5. 군사의 수가 15만 명이란다. 출애굽 때와 사울 왕 때와 비교하면 어떤가?

출애굽 때와 비교하면 거의 3배, 사울 왕 때에 비하면 5.6배의 규모다. 자랑스러웠겠지만 백성이 얼마나 될까 싶은 교만한 마음이 결국은 백성의 숫자를 줄여놓고 만 것이다.

6. 요압이 왜 레위 지파와 베냐민 사람들은 계수하지 않았을까? 기분이 나빠서?

레위 지파를 계수하지 않은 것은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베냐민 지파는 아마도 사보타지 중(6) 아닐까? 그렇다면 여기 숫자도 그리 정확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 삼하 24장에 따르면 요압은 먼 곳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면 최후의 조사대상이 베냐민 지파가 된다. 이 경내에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이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이 일을 끝내지 않고 미적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 아닐까(대상 27:24)?

7. 다윗의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는 나단이였다. 다윗이 밋세바와 범 죄했을 때는 나단이 잘못을 지적하더니 백성을 계수하는 잘못을 저지르자 갓이 등장한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타나 중요한 말씀을 전한 적이 이외에 또 있을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 단 한번 선지자가 찾아온 적이 있다. 그 때 갓이 찾아와서 모압을 떠나 유다로 가라고 했다(삼상 22:5). 쫓길 때 쫓기더라도 유다에서 쫓기라는 기묘한(?) 주문이었다. 그래서 나단이나 갓이 사무엘서의 저자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8. 선지자가 제시한 선택 과목은 셋이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다윗의 기준은 무엇인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께 맞겠다는 것(13): 범사에 하나님을 잊지 않는 다윗다운 태도다. 어느 재앙이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은 틀림없지만 중요한 것은 재앙을 받아들이는 그의 마음이다. 잠시 흔들렸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즉시 제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설령, 실수를 했다고 해도 재빨리 인정하고 정신을 차려야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3년 기근이 사무엘서에는 7년 기근으로 나와 있는데(삼하 24:13) 문맥상으로 보면 여기 기록이 정확한 것으로 여겨진다.

9. 죄인에게 벌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 않다. 어떤 때에 이런 일이 생길까?

벌을 주기는 싫지만 주지 않을 수 없어서 그럴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쩔 수 없이 매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 맞는 자식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프다. 이걸 아는 자식이 별로 없다.

10. 다윗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7만 명이였다는데(14) 이것은 어마어마한 재앙이다. 이들은 다윗 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것 아닌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려고 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다(1절). 이유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니 추측을 할 수밖에 없다. 쉽게 짐작이 가는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행위는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에 동조한 죄일 것이다. 다윗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백성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을 추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명백한 범죄행위다.

11. 이왕 맞을 매라면 하나님에게 직접 매를 맞겠다는 다윗의 선택이(13) 제대로 맞아떨어진 셈이다. 하

하나님께서 뉘우쳤으니 말이다.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서 이렇게 마음을 돌리셨을까? 이곳이 과거에 어떤 장소이었는지 훗날 어떤 장소가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곳, 성전이 세워지는 곳,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곳: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이 눈에 보이는 곳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의롭게 된 것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피 묻은 자신의 아들을 보신 것이다.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간 것도 문에 바른 피를 보셨기 때문이다. 참고로 오르난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삼하 24:16의 아라우나는 여부스식 발음이란다.

12.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천사가 하필이면 여부스 사람의 땅에 섰을까? 여부스 사람과 예루살렘은 무슨 관계인가?

예루살렘이 원래 여부스 사람들의 본거지였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의 외곽에(바로 건너편에) 있었다. 평평하고 약간 높은 곳이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천사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면 멸망시키려는 자세를 잡고 서 있었다는 말이다. 훗날 이곳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예루살렘이 확장되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다.

13. 예루살렘을 멸하려는 천사를 보고 다윗이 '죽을 놈은 바로 잡니다, 백성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한가, 칭찬받을 일인가?

당연한 일이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모양이더라: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도 '죽을 놈은 저 놈입니다'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다. 당연한 고백임에도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하나님께서 먼저 뉘우치셨는데(15) 엉뚱한 소리를 해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14. 재앙 내리는 일을 중지하시면 되지 제사는 왜 드리라고 할까?

제사를 통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이다. 범죄한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사였다.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을 받아주시겠다는 응답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15. 천사를 본 오르난은 얼마나 놀랐을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숨어있는데 왕이 신하들과 함께 왔다. 그러더니 땅을 팔란다! 어떡하지?

당장 드러야지: 어떻게 값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냥 쓰세요' 할 수밖에 없다. 오르난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왕이 이유를 설명하기도 전에 드릴 판이다!

16. 땅은 물론, 소나 곡식 떠는 도구까지 전부 그냥 드리겠다는 데도 다윗은 값을 다 지불하려고 한다. 자원해서 드린다는 데 꼭 값을 계산해야 하나?

정당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 더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겠다는 것이다. 자신을 드리는 것이니 지극히 당연하다. 어떤 분이 목사는 참 나쁜 놈이란다. 성도들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네요' 하고 '가져 가세요' 하면 고맙게 가져간다. 그래놓고 뒤에서 욕을 한다. 목사뿐만 아니라 위사람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된다. 주는 것을 아무 생각없이 넘죽넘죽 받아도 안 된다.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다. 진심을 무시하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17. 금 육백 세겔은 은으로 치면 9000세겔이다(15배).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삤이다. 그러면 100년 연봉인데 너무 비싼 것 아닌가?

너무 너무 큰 금액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타작마당만 계산한 것이 아니라 훗날 성전터로 삼으려고 산 전체를 산 값으로 본다: 삼하 24:24에는 은 오십 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산 것으로 되어있다. 처음에는 타작마당만 샀다가 후일에 산 전체를 사서 예루살렘과 연결시킬 때에 들어간 비용을 이렇게 기록한 모양이다. 사무엘에서는 이 사건을 다윗이 용서받는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고 역대기에서는 성전부지를 마련한 것에 초점을 둔 탓이다(21-27장의 내용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다). 다윗의 실수마저 성전부지를 마련하는 도구로 쓰였다.

18. 다윗이 천사의 칼을 무서워하여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인가?

기브온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는 일: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칼집을 도로 꽂은 천사를 무서워하여 여기에서 계속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다. 그 천사가 다시 칼을 빼어들까 싶어서 기브온 산당으로 가지 못하고 여기에 성막을 새로 짓고 제사를 드리다가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된 것이다. 가장 두려운 형벌의 장이 가장 은혜로운 성전이 되었다!

역대상 22 장

1. 성전을 짓기도 전에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도 되나?

의지가 확고함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을 하셨으니 반드시 이곳에 성전을 짓겠다는 뜻이다. 곤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보이셨으니 이어지는 것은 당연지사다. 다윗이 저지른 실수(인구조사)조차 성전부지를 확정짓는 계기가 되었다.

2. 다윗이 준비한 재료는 무엇이며 각각 성전의 어떤 부분에 필요할까?

돌, 철, 놋, 나무, 금, 은

돌: 벽체와 기둥, **철:** 못이나 돌짜귀, **놋:** 각종 기물과 기둥 마감재, **나무:** 석재 위에 붙이는 마감재료 및 서파래, **금:** 내부의 최종 마감재료, **은:** 회막에서는 받침대였는데 성전에서는 받침대가 필요없으니 각종 그릇을 만드는 데에 쓰였을까?

3. 어차피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라고 불릴 것이다. 자기가 지을 성전도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불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때문이다: 자신의 명예나 유익만 생각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내게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죽을 수도 있다(렐 1:21)는 고백에 다른 아니다.

4. 솔로몬이 왕위를 잇고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가?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9):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디디야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아들이니 당연히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다른 아들들이 그 자리를 노릴 때 나단 선지자가 앞장서서 솔로몬의 즉위를 도왔다. 왜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을까? 솔로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을 위시하여 한 두 사람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5. 시돈과 두로에서 백향목을 운반하는 방법이 수운이라면 강을 이용했다는 말인가?

강이 아니라 바다를 이용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북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려면 와디라고 불리는 많은 골짜기를 건너야 한다. 바다로 오는 것이 훨씬 쉽다.

6.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면 다윗이 치른 전쟁이 잘못이라는 말인가, 아니면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인가?

둘 다 아니다: 다윗이 싸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다. 성전은 평강의 상징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솔로몬이 적격이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느라 수고하고 솔로몬은 평화를 누리는 것(9)이 임무다. 그런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그 분이 찾아준 평강을 잘 누리는 것이 그 분의 수고에 보답하는 길이다.

7.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법이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을 자신의 손으로 세우고 싶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 양보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때를 쓰거나 불만을 말해보지도 않고 순종하는 것이 다윗이다. 오히려 엄청난 준비를 해놓고 솔로몬에게 그 영광을 넘겼다. 꼭 내가 해야 한다? 내 이름으로 뭔가를 남겨야 한다? 세상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더라. 교회에 헌물을 해도 꼭 표나는 것만(가령, 강대상) 하려고 하더라. 표나지 않는 일에는 헌신하면 안 되나?

8. 하나님께서 왕위를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될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는 지켜야 형통한다(13).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왕위라도 제대로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 하셨으나 죽도록 고생만 한 야곱처럼! 다윗도 범죄함으로 엄청난 댓가를 치렀다.

9.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13)이 영원한 왕위(10-11)를 얻는 전제 조건일까?

아니다: 전제조건은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지만 다윗 언약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전제조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개인적으로는 왕위를 제대로 누리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평생을 함께 하셨으나 죽도록 고생만 한 야곱처럼!

10. 다윗이 준비한 건축 재료 중에 금 십만 달란트(3, 400톤)와 은 백만 달란트(34,000톤)는 아무래도 너무 많다. 대상 29:4에는 다윗이 드린 것이 오빌의 금 삼천 달란트와 순은 칠천 달란트며, 백성들이 드린 것은 금 오천 달란트와 금 만 다릭, 은 만 달란트와 놋 만 팔천 달란트와 철 십만 달란트다(대상 29:7). 솔로몬이 실제로 얼마나 썼을까?

지성소만(?) 순금 600달란트(대상 3:8): 그래서 본문의 숫자는 아무래도 필사자의 오기나 오독으로 인한 실수 아닐까?

11. 다윗의 위대함을 18-19절에서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말년에 성전을 위해서 철저하

게 준비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참 잘 안 되는가 보더라. 수많은 간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교만해서 생기던데?

역대상 23 장

1. 다윗의 나이가 얼마나 되었기에 늙었다고 할까?

70세 정도: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수명이 그 정도면 많았던 모양이다. 30세에 왕이 되었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예루살렘에서 33년 통치했기 때문이다(삼하 5:4-5). 말년에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혼란이 있었지만(왕상 1-2장)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줌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2.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 적지 않았지만 말년에 특히 어디에 관심을 쏟고 있는가(22, 23장)?

성전 건축 준비(22장)와 예배 제도 완비(23장): 솔로몬이 건축하게 될 성전을 위해서 재료를 엄청나게 준비했고 레위인들을 기능별로 조직함으로 완공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한다.

3. 예배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데 방백들이 왜 필요한가? 레위 지파의 일인데?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레위 지파의 일이지만 다른 지파의 도움이나 행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경배하는 것이 레위 지파만의 일은 아니다. 교회의 일도 목사들이나 직분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4. 삼십 세 이상(오십 세까지)의 레위인이 38,000 명이라면 많은 편일까?

많다: 다윗의 통치 말기에 나라가 안정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많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 500년 전 쯤에 모세가 헤아렸을 때는 8,580이었다(민 4:47-48).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사사시대에 인구가 그렇게 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면 굉장히 많아진 셈이다.

5. 성전의 일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24,000 명이나 필요했을까?

제사드리는 일: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다. 제사장이 24반열이 있었으니 한 제사장 아래 1,000명이 부속되어 일을 했던 모양이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의 규모가 엄청났음을 짐작케 하는 숫자다. 찬양대만 해도 4,000명이었으니...

6. 레위의 아들들은 셋이다. 본문이 말하는 그 세 아들의 후손은 전부 몇 명인가?

24명: 게르손 10명(7-11), 그핫 9명(12-20), 므라리 5명(21-23)이다. 24명을 언급하는 것은 레위인 24반열의 우두머리를 소개하기 때문이다.

7. 9절과 10절의 시므이는 다른 사람이다. 7절의 시므이 즉 게르손 자손의 시므이는 9절일까, 10절일까? 참고로, 라단의 우두머리란 말은 라단 계열에서 나온 반열의 우두머리라는 말이다.

10절: 9절의 시므이의 아들들은 라단의 후손들이다. 다시 말하면, 8-9절은 라단의 후손들에 대한 언급인데 그 후손 중에 시므이가 있고 그 아들들 세 사람이 라단의 계열로서 반열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는 말이다. 라단 계열에서 나온 반열의 우두머리에 시므이의 아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이 시므이가 게르손의 아들 시므이가 아니라 라단의 후손(물론 게르손의 후손도 된다) 시므이라는 말이 된다. 결과적으로 게르손 자손의 중요한 계열 두 개는 라단과 시므이다! 여우스와 브리아는 아들이 많지 않아서 한 조상의 가문으로 계승되었음에도 독립된 반열로 취급되었다.

8. 그핫(고핫)의 아들들은 네 명이다. 그 밑에 몇 반열이 있는가?

아므람 2명(모세의 아들 2), 이스할 1명, 헤브론 4명, 웃시엘 2명, 도합 9반열!

9. 아론의 자손은 여기에 이름도 없다. 반열에 들지 않은 이유가 뭘까?

제사장으로 봉사하게 했기 때문이다: 분향하고, 섬기며, 축복하는 것이란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10.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후손은 무슨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가?

전혀 받은 바 없다: 두 반열의 우두머리가 나온 것은 전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의 왕자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행한 모세는 전혀 특권 의식을 가지고 않았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르하바에게 많은 아들을 주셨나보다.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신다(솔로몬이 그렇게 복을 받았다).

11. 므라리의 아들들은 2명이다. 그 밑에는 몇 반열이 있는가?

마홀리 2명, 무시 3명, 도합 5명: 엘르아살에게는 아들이 없었지만 형제 기스의 아들이 딸들에게 장가를 들었으면 이들이 아들 노릇을 한 셈이다.

12. 20세만 되도 우두머리 노릇을 할 수 있었다고?

원래 회막일은 30세가 넘어야 할 수 있었는데(민 4:3) 나중에 25세로 낮췄다(민 8:24). 다윗이 다시 20세까지 낮추었다. '20세 이상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자들의 우두머리'라고 번역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13.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뭘 필요가 없어진(26) 이유는 무엇인가?

이동식에서 고정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에 이들에게 주어졌던 임무는 조립식 성막의 이동에 관한 것이었다. 성전이 건축되면 이동시킬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14.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라는 다윗의 말은 오래 전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다.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할 것이다(신 12:5, 11, 14) 그러면 그 곳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었다. 그 약속이 거의 500 년 가까이 되어서 이루어진 셈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자꾸 미루어진다.

15.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을 돕는 것이 직분이다. 아론의 자손은 뭔데?

제사장: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맡은 직분에 따라 제사장을 돕는 것이 레위인의 직분이었다. 그것이 성전이나 풀이나 골방에서 섬기는 일이든지, 과자를 굽든지, 찬송이든지... 다 귀한 직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16. 레위인들이 맡은 일 중에 과자 굽는 일이 왜 들어있는가? 간식 준비를 말하는 걸까?

제사 제물을 만드는 일이다: 소제를 드릴 때 유향 대신에 조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과자를 만드는 것이다(레 2:1-4)

역대상 24 장

1. 전장에서는 레위인, 즉 제사장을 돕는 사람들을 24반열로 나누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

동일하게 24반열로 나누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가령, 제1반열 제사장이 임무를 수행할 때는 제1반열 레위인들이 봉사하는 식이다.

2.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시절에 죽었다(레 10:1-3). 다시 말하면 오래 전에 죽은 조상인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야 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은연중에 되새기는 셈이다. 하나님은 제멋대로 대해서도 관용은 분이 아니시다(레 10:3).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다.

3. 다윗의 시대에는 제사장(실제로는 대제사장)이 두 명 있었다. 사울의 왕가를 흡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셈이다. 누구인가?

사울과 아비아달(혹은 아히멜렉):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로 다윗이 쫓기던 시절에 도와준 일로 사울에게 죽임을 당했다(삼상 22장). 그런데 왜 여기에도 아히멜렉이라고 나오는 걸까? 아마도 아비아달의 아들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또 아히멜렉 아니었을까(삼하 8:17, 대상 18:16)? 아비아달이 나이 많아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그의 아들 아히멜렉이 대신하고 있었을 것이다. 아비아달은 말년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했다가 제사장의 지위를 박탈당하고 말았다.

4. 레위인을 24반열로 나눌 때는 가문을 따라서 나눴다. 제사장이 경우에는 조금 다른가?

가문 외에 자손의 수를 고려했다: 자손이 많으면 반열을 더 많이 배정했다는 말이다. 엘르아살의 자손이 배나 많았다.

5. 두 가문에서 24명의 우두머리를 세웠는데 제비는 왜 뽑았을까?

순번을 뽑은 것(7-18): 순번이야 뭐 그리 중요할까? 다만, 차등이 없었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저런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애를 썼다는 점이 중요하다.

6. 여기 나온 24반열의 명단 중에서 알 만한 사람이 있는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는데?

아비아 반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바로 이 반열의 제사장이었다(눅 1:5).

조금 달라지기는 포로기 이후에 조금 달라진 채 나타나기는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을까?

7. 아브람의 아들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인데 누구더라?

아론과 모세: 그러면 수바엘이 모세의 동생인가? 실제로는 아브람의 증손이다(23:16의 스부엘, 모세의 장자 게르솜의 아들)

8. 20-25는 그핫 족속의 아홉 반열을 다시(23:12-20의 반복) 소개하고, 26-31은 므라리 족속의 5반열을 다시(23:21-24) 소개하는 중이다. 아휴, 머리 아파!!! 므라리 족속의 경우에 두 군데를 비교해서 차이점을 찾아보자.

여기에는 야아시야가 추가되어 있음: 아마 야아시야는 므라리의 아들이 아니라 후손이었을 것이다. 훗날 큰 가문으로 성장하게 되어 반열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24반열이 끝까지 유지된 것이 아니라 바뀌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했다.

9. 제사장을 24반열, 레위인들도 24반열로 조직한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이다. 성전이 하드웨어라면 제사장과 레위의 24반열은 소프트웨어인 셈이다. 교회에도 이런 조직이 필요한가?

교회가 해야 할 많은 일을 많은 봉사자들이 조화롭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조직이 목표가 되지 않아야 한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면 조직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기도 한다.

10. 장자는 엄청난 복을 물려받았는데 왜 여기서는 차이가 없을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장자나 막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높고 낮음도 귀천도 없다. 한 형제요 자매일 뿐이다.

역대상 25 장

1. 제사장을 24반열로, 제사장을 돕는 레위인을 24반열로 나누었다(23-24장). 이제는 또 무슨 24반열이 필요한가?

찬양대: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과 찬양대가 한 팀을 이루어 일정한 기간 동안 예배를 위해 봉사하였다.

2. 찬양대를 조직하는 일을 왜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했을까?

군대 지휘관, 혹은 봉사의 우두머리, 혹은 방백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통틀어 신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다윗이 단독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신하들과 의논해서 일을 했다는 의미다.

3. 다윗의 찬양대에는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아삽, 헤만, 여두둔이다. 복습 삼아, 예배처소가 예루살렘과 기브온 산당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찬양을 맡은 사람이 누구더라(16장)?

아삽(16:1-5, 37): 헤만과 여두둔의 찬양대는 기브온 산당에서 봉사했다(16:39-42). 그러던 것을 성전을 완성한 후에는 함께 찬양하게 된 것이다.

4. 수금과 비파와 제금으로 찬양을 하는데 어느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지휘자일까? 참고로 우리나라 농악대는 팽과리를 치는 사람을 상쇠라고 하는데 지휘자인 셈이다. 박자를 조절하니!

제금: 심벌즈와 같은 악기로 박자를 맞추는데 쓰인 악기다.

5. 5절은 다른 번역본을 참고해서 차이점이 무엇인가 알아보자.

'나팔을 부는 자'라는 말이 '뿔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번역이 약간 다르다. 양쪽으로 가능하지만 문맥으로 보면 헤만의 뿔을 높이신 결과로 많은 자녀를 두었다는 뜻이 된다. 원문의 용례를 따져도 그렇다.
[NKJV] All these were the sons of Heman the king's seer in the words of God, to exalt his horn. For God gave Heman fourteen sons and three daughters.

6. 헤만은 찬양대 지휘자인데 어떻게 선견자라고 불렸을까? 그가 선지자 노릇을 한 기록은 없는데?

영감있는 찬양을 부름으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 아닐까? 때로는 말씀보다 찬양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7. 찬양대의 골격은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아들들이 24반열의 책임을 맡았다. 각각 몇 반열씩 이끌었는가?

아삽의 아들은 4(2), 여두둔의 아들은 6(3), 헤만의 아들은 14(4)이다.

8. 찬양대 전체 인원이 288명이었던다. 이 숫자를 인수분해 해보자.

288 = 24×12, 설마 수학시간처럼 인수분해하지는 않겠지(25×33)! 찬양대가 24반열이었는데 전체 인원이 288명이라면 한 찬양대는 지휘자를 포함해서 12명(9-31)이라는 말이다. 적으니까 23:5절에 보면 찬양을 위한 레위인의 총수는 4,000명이었다. 그러면 반열당 거의 170명이라는 말이다. 그러면 여기 12명(찬송에 익숙한 자)은 찬양대원이란기보다는 찬양대 임원이거나 가르치는 역할이었다고 보는 것이 좋겠다. 전체 찬양대의 조직은 1명의 왕 밑에 3명의 지휘자와 이들을 포함한 24명의 두목, 288명의 교수, 4,000명의 대원이었던 셈이다.

9. 학문이나 운동도 누구에게 배웠느냐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달리 말하면 스승의 권력이 거의 절대적이다. 스승을 배반한다면 그 바닥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시각으로 보면 다윗의 찬양대에는 어떤 혁명 같은 일이 있는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10.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십이 명'이라는 구절이 반복된다. 이것은 찬양대가 어떤 성격이었음을 보여주는가?

찬양대가, 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찬양대였음을 보여준다.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11.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에는 제사제도와 성막이 주된 내용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구체적인 찬양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런 조직과 규정을 만들었다. 자기가 찬양을 좋아한다고 마음대로 한 것 아닐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제 4:11, 19:1, 6)으로 보아 다윗의 이런 일이 영감을 받은 결정임에 틀림없다. 조상들에게 주신 언약(핵심은 땅과 후손)이 일단, 다윗의 시대에 온전하게 이루어진 셈이다. 그 결과로 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다. 훗날 천국에서 그럴 것에 대한 예표인 셈이다.

역대상 26 장

1. 23장부터 보면, 성전에서 24반열을 이루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 몇 종류인가?

4종류: 레위인의 24반열(23장), 제사장의 24반열(24장), 찬양대의 24반열(25장)에 이어 이제 문지기의 24반열이다(1-19).

2. 문지기는 레위 지파 사람들로서 어느 족속의 사람들로 구성되었는가?

고라 족속(1-9)과 므라리 족속(10-11): 고자 자손들은 조상이 엄청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았지만 그 죄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귀한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리고, 원래 므라리 자손들이 맡은 것은 성막의 벽체(설판)와 기둥과 뜰의 담장(기둥) 및 그에 따른 부품들(띠, 받침)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직분을 맡았다.

3. 가장 많은 문지기의 반열을 맡은 가문은 어느 가문인가?

오벰에돔: 므셀레마의 7아들이 반열을 맡았는데(2-3) 오벰에돔은 8 아들인데 그 중에서 스마야의 아들 6명도(7) 반열을 맡았으니 결국은 13반열을 맡은 셈이다. 이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궤를 잘 돌보았으므로 하나님께서 오벰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삼하 6:11)이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많이 주신 것이다.

4. 24반열의 우두머리는 24명이면 되는데 오벰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 므셀레마의 아들과 형제가 18명,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명이면(8, 9, 11) 자리가 모자라는데?

24명 외에는 반장(12)의 직분을 맡았다.

5. 므셀레마의 아들과 오벰에돔의 아들 중에서 20반열의 우두머리가 나왔다. 그러면 아직도 4명이 더 필요한데?

므라리 족속의 호사에게서 4아들이 있었다(10-11).

6. 또 제비를 뽑았네(13)! 가문의 대소를 막론하고 평등하게 다루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매사를 공평하게 다루려는 것이다. 이번에는 무엇을 나누려고 제비뽑기를 했을까?

근무 장소: 앞에서는 주로 근무 순번을 정하려고 제비를 뽑았는데 여기서는 근무 장소를 정하기 위함이다.

7. 성전의 규모가 엄청나게 컸으니 제사에 필요한 도구, 하나님께 바친 물건들, 섬기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의 양도 엄청났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보관하는 창고가 꽤 많았을 것이다. 공간을 두 종류로 나눴네?

성전 공간(20, 22)과 성물 공간(20, 26): 제사에 직접 필요한 것과 하나님께 바친 물품(26)을 구분해서 보관하지 않았을까? 백성들이 낸 십일조나 헌물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까지 합하면 엄청난 양이었을 것이다.

8.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브엘은 무슨 특혜를 받았는가?

특혜는 전혀 없다: 위대한 모세의 아들이라고 게르솜이 특혜를 받은 것이 전혀 없다. 이럴 수가? 그저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으로 말아야 할 직분 중에 공간을 맡았을 뿐이다(24). 권력세습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분들이 이런 장면에서 은혜를 좀 받아야 할 텐데.

9. 사무엘과 사울과 아브넬과 요압이 언제 무엇을 구별하여 드렸는지는 알 수가 없다. 짐작해 본다면 무엇일까?

싸워서 얻은 물건(27): 이 네 사람은 블레셋, 아말렉과 심하게 싸웠다. 전쟁의 지도자들이었다. 당연히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을 것이고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10. 레위인들이 성전에서만 봉사한 것이 아니라 성전 밖, 즉 이스라엘의 관원과 재판관으로 봉사도 했네! 진짜 귀족 지파네! 이들이 이런 직분을 맡게 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율법을 맡았기 때문이다: 율법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가르쳐야 했으니 결국은 재판도 하게 된 것이다. 야곱에게는 저주같은 장래사를 들었는데 이럴 수가!

11. 요단 서쪽은 가나안 땅을 가리킨다. 그러면 요단 동편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본문에서 찾아보자.

길르앗(31):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32)의 땅이다.

12. 요단 서쪽은 용사 1,700명이 활동했는데(30) 요단 동편은 2,700명이 활동한(32) 셈이다. 요단 동편이 훨씬 더 넓어서 그럴까?

외적을 더 많이 상대해야 하는 취약지역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13. 다윗이 왕 위에 있는 지 40년이면 몇 년이 더 남았는가?

은퇴만 남았다: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다(삼하 5:4-5). 마지막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상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두었다. 그러니 솔로몬이 즉위하여 나라가 탄탄한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다.

역대상 27 장

1. 첫째 달 반의 반장이라는 표현이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이라는 표현과 동등한 표현이다. 이 반장은 지휘관이란 뜻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군대의 어떤 직책 같은가?

24,000명을 거느린다면 사단장 격이다. 1개 사단이 대체로 20,000명 정도란다. 현대에는 사단이 이 정도지만 고대라면 거의 군단장 격이다. 로마의 1개 군단은 6,000명 + 6,000명(속주병)으로 구성되었단다.

2. $24,000 \times 12 = 288,000$ 명이면 대단한 군대다. 상비군을 이렇게 많이 두려면 재정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한 달씩 근무를 했다(1). 그러면 평상시에는 예비군이다. 결국 24,000명으로 국방을 담당했다는 뜻인데 이걸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불가능하리만치 적은 숫자다.

3. 첫째 달 반의 반장이 야소브암이다.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이름인데? 베레스의 자손이라면 어느 지파인가?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쌍둥이 아들이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있는 이름이다. 그러면 다윗도 베레스의 후손이니까 제 1사단장은 거의 왕족이네! 그렇다고 단순히 왕족이라고 사단장에 임명된 것은 아니다(대상 11:11).

4.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다 했으면 끝이 아닌가? 신정국가의 왕이 군사제도와 행정이나 재산관리에만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자신이 해야 할 일, 혹은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나님께 떠맡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윗은 완벽한 나라를 세우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한 셈이다.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교회 일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 직장 일을 잘 감당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5. 다윗의 신하 중에는 유명한 장군들이 많다. 가장 오래 동안 가장 충성스럽게 다윗을 도운 장군을 찾아보자.

브나야가 유명하다. 그렛과 블렛 부대의 대장이었다(삼하 8:18).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며(삼하 23:20, 대상 27:5) 다윗의 시위대장관으로서 세 용사 중의 한 사람이다(삼하 23:20, 21, 대상 11:22, 23). 압살롬과 아도니야의 반역 때에도 충실하게 다윗을 쫓았다(삼하 15:18, 20, 23, 왕상 1:10). 솔로몬 왕을 보호하여 아도니야(왕하 2:25), 요압(왕상 2:29-34), 시므이(왕상 2:46)를 죽여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장관이 되었다(왕상 2:35).

6. 빠른 발로 유명하지만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장수는 누구인가? 이미 죽었음에도 그의 이름을 올린 셈이다.

아사헬(?) 다윗의 누이 스루야의 아들 삼형제 중 막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이자 다윗 왕의 조카였다. 발이 들노루 같이 빨랐다(삼하 2:18). 기브온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패주하는 것을 추격하다가, 오히려 그에게 창 뒤끝으로 배가 찢려 피살되었다(삼하 2:12-23). 그는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죽었지만 네째 장관에 임명되어 그의 아들 스바다가 대행했던 모양이다. 다윗왕이 아사헬의 공로를 잊지 않고 있었다는 뜻이다.

7. 군대조직을 말하고(1-15) 이제는 민간조직을 말한다(16-24). 각 지파의 족장을 임명하는 셈이다. 12지파가 다 있는지 찾아보자.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없다: 그런데도 지도자의 총수는 더 많다!

8. 각 지파의 지도자는 전부 몇 명인가?

13명: 두 지파가 생략되었지만 레위 지파와 므낫세 지파에 한 명씩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므낫세 지파는 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이고 레위 지파에는 제사장을 관할하는 지도자를 따로 두었기 때문이다. 제사장과 다른 레위인들의 지도자를 따로 둔 것은 의미가 있어보인다. 아무래도 제사장들은 달리 취급되어야 했을 것이다.

9. 다윗이 20세 이하의 수효를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계수의 목적은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를 파악하려는 것이기 때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의도가 불순하게 보였기 때문에 징계를 당했다. 그럼에도 역대기 저자는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후손들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23). 그런 이유도 절반, 이런 이유도 절반 아닐까?

10. 인구조사에 대해서 요압이 선뜻 동의하지는 않았고 마지막에는 태업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조사를 거의 다 끝냈다(대상 21:5-6). 그럼에도 역대기서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윗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함에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적지 않던데...

11. 1-15는 상비군 조직, 16-24는 행정조직이다. 그러면 25-31절은 무슨 조직인가?

왕실 재산 관리조직: 곳간, 각 지방의 곳간, 일꾼, 포도원, 포도주 곳간, 농원(감람, 뽕), 기름 곳간, 사른 목장, 골짜기 목장, 낙타, 나귀, 양떼

12. 곳간의 종류가 몇 가지인가?

세 가지로 보는 것이 좋겠다: 왕의 곳간은 왕의 개인 보물을 보관하는 곳이며, 전국적으로 흩어진 곳간은 각 지방의 특산물이나 세금, 군량이나 무기를 보관하기도 했을 것이다. 농장(포도, 감람, 뽕)에 딸린

곳간은 생산품을 보관하기 위한 것일 테고.

13. 다윗의 재산관리 중에 왜 이스마엘 사람이나 하갈 사람이 있을까?

그 분야를 잘 아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맡겼겠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살던 이들이 다윗에게 복속되었다는 것이다.

14. 왕의 모사와 왕의 밭 중에 어느 쪽이 좋을까? 이 두 사람의 마지막은 극명하게 갈라지는데?

우열을 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훗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다가 자살한 것이나(삼하 17:23) 후새가 왕의 편에서 큰 공을 세운 것은 다른 문제다. 둘 다 정말 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다.

역대상 28 장

1. 성전건축을 당부하는 말은 솔로몬의 왕세자 책봉이나 다름없다. 모든 관리를 다 불러 모았는데 그 중에 내시가 들어있네? 거의 모든 나라 왕궁에는 왕의 여자들이 많아서 남자 구실을 하지 못하는 내시, 혹은 환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도 그랬을까?

없었다(예 22:24, 신 23:1) 내시라고 번역된 이 말은 차라리 '궁중관리' 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 창 37:36, 삼상 8:15에서는 신하라고 번역되었다.

2. 성전건축을 솔로몬에게 당부하면 될 텐데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서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었을까?

모든 관료와 신하들이 협력하라고 당부하는 셈이다: 이스라엘은 다윗 개인에게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나라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협력해야 하는 나라다. 다윗이 혼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도 될 것이지만 모든 백성과 신하들이 알고 함께 협력하며 가는 모습이 더 아름답다.

3. 여호와와 임재하심을 보여주려고(출 25:22) 만든 언약궤를 하나님의 발판이라고? 대제사장도 함부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신성한 것인데?

언약궤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지 않으려는 표현이다: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신성하게 여겼지만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발을 딛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신성하다고 하는 셈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은 성전이니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건물에만 집착했으니!

4. 피를 많이 흘렸다고 성전을 짓지 못한다면 다윗이 죄가 많다는 뜻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전쟁이었는데? (22장에 동일한 질문이 있음)

다윗의 역할이 평화의 상징인 성전 건축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윗이 싸운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다. 다윗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에 있어서 말은 역할이 대적과 싸우는 것이다. 성전은 평강의 상징이어야 한다. 그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솔로몬이 적격이다. 다윗은 나라를 세우느라 수고하고 솔로몬은 평화를 누리는 것이 임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 우리는 그 분이 찾아준 평강을 잘 누리는 것이 그 분의 수고에 보답하는 길이다.

5. 권력자가 물러날 때가 되면 후임을 세우는 일이 신경을 곤두서게 마련이다. 솔로몬은 누구에 의해서 후계자가 되었다고 하는가?

하나님의 선택: 많은 왕들이 스스로 주장하기를 왕의 권세를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고 했는데 일종의 자백이다. 솔로몬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데 방백들이나 백성들에게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을 것이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솔로몬보다 아도니야가 왕위계승자다(왕상 1:6).

6.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느 나라의 왕이기도 한가?

하나님의 나라(5): 이스라엘은 일반적이 나라와 많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이기에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견제했다.

7.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끝 아닌가(↔ 7, 8)?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에게도 해야 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해야 한다: 양자가 되어 어느 집에 갔다면 그 집의 가풍을 익히고 식구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담 때부터 노아나 아브라함,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음에도 항상 계약의 형태를 띠셨다. 대등한 입장에서 쌍방간에 지켜야 할 계약과는 전혀 다른, 부모와 자식간의 계약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이 계약이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약의 메시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8.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섬겨야 한다고 했는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9): 온전한 마음이란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의미하는데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면 진정한 기쁨으로 그 분을 섬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안다는 말은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지식을 의미한다.

9. 하나님께서 솔로몬,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지라도 솔로몬이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간절하게 소망하는 자를 기뻐하신다.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다. 아시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나? 기도는 자판기의 스위치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10. 다윗이 건축에도 일가견이 있었나 웬 설계도를 다 그려 주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다(12, 19) 모세는 말로 전달했는데 다윗이 설계도를 그려서 전달한 이유는 성전이 훨씬 더 복잡했기 때문일 것이다.

11. 성막은 황금의 집이라 불렸다. 거의 모든 기물, 특히 내부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금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내부에서 보면 모든 것이 금이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은으로 된 등잔(15-17)과 기구를 만들라고 하였을까?

아마 부속 건물에 소용되는 것, 제사장을 위한 기구였을 것이다.

12. 향단과 그룹을 금으로 만드는데 수레는 왜 들어가지(18)?

수레란 그룹을 의미하는 것(동격)이다: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는 것으로 묘사된 탓이다(시 18:10, 겔 1:23-26).

13.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보여주셨고 다윗은 모든 준비를 다 마쳤다. 그러면 솔로몬이 할 일이 무엇인가?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렇게 준비된 일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려울까?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걸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권고일 것이다.

역대상 29 장

1. 28-29장은 다윗의 통치 40년의 총결산이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가?

성전건축: 잘 한 일도 많고 몇 가지 중요한 실책도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성전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온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권하는 장면은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 신앙을 변치 않았다.

2. 성전건축을 위한 다윗의 마지막 당부는 무엇인가?

건축을 위한 백성들의 헌신 요구: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였다. 그러자 백성들도 자원하여 엄청난 재물을 드렸다. 성전은 온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온 백성이 참여하고 힘을 모으는 것이 바람직하다. 능력이 있다고 혼자서 일을 다 도맡는 것이 아니다.

3. 다윗은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3):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가 있으니 그 분을 위한 행동이 따라오는 것이다. 마음이 없는 선행은 억지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 마음이다.

4. 다윗이 성전건축을 위해서 드린 예물을 두 종류로 나누어 보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2절의 내용은 왕의 자격으로 국가의 재산을 드린 셈이고 3-4절은 개인의 재산에서 드린 모양이다.

5. 금 삼천 달란트면 얼마나 될까?

약 102톤(1달란트는 34kg): 약 2,700톤이다. 이것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양인데 백성들이 드린 것이 오천 달란트니! 훗날 솔로몬의 성전의 내부 전체를 금으로 입혔다. 지성소 내부를 덮는 데만 정금 600 달란트였다(대하 3:8).

6. 왕의 요구에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까?

즐거이(6), 자원하는 마음으로(9):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기쁜 일이다. 기쁘지 않은 봉사는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7. 백성들이 즐거이 드린 예물 중에는 금 만 다릭이 포함되어 있다. 다릭은 페르시아 다리오 1세가 만든 금화로 8.4g(=2.24돈)이다. 다윗은 페르시아의 다리오 1세보다 500년이나 먼저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왜 여기서 다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걸까?

다리오 시대에 귀환한 역대기의 처음 독자들에게는 익숙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다만, 금 5,000달란트는 170톤인데 10,000다릭은 기껏 84kg(=2.5달란트)에 지나지 않는다. 굳이 이렇게 작은(?) 분량을 따로 구분한 이유는 잘 모르겠다.

8. 다윗은 하나님을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10)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가?

야곱: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굳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까? 아마도 자신이 야곱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 야곱은 복을 받을만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 괴만 의지하고 살았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다는 점에 주목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이 훨씬 나아 보이는데...

9.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린 재물을 보고 다윗 왕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마음을 드렸기 때문(9, 14, 17): 재물의 양이 엄청나지만 그것보다는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 마음이 따라가지 않는 재물은 무용지물이다(호 6:6).

10.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 후 왕과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

드린 힘을 주신 것을 감사(14, 16): 이만큼 드렸으면 됐죠? 이만하면...?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주셨음을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행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보여야 한다.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한 만족스런 느낌보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행하심에 오직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어떤 분이 '십일조를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감사를 드렸다. 그 마음 변치 않는다면 얼마나 복될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만큼 십일조를 하는데?'로 생각이 바뀌면 불행해지는 것이다.

11.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실패한 원인은 자신의 왕권을 지키려고 애를 쓴 탓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여로보암이다. 백성들이 남쪽 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을 막으려고 벧엘과 단에 우상을 세웠는데 이 일로 인하여 가장 악한 왕의 상징이 되고 말았다. 다윗은 이런 왕들과 어떻게 다른가?

자기 위에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았다(11-12).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최고의 권력자로 행세한 왕은 실패하고 자기 위에 더 큰 주권자가 있음을 알았던 왕은 선한 왕이 되었다.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학문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12. 조상들이야 이 땅에서 나그네였지만 다윗의 시대에는 나그네가 아니라 주인이었다. 그런데 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이라고 하는가?

자신들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16)는 의미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또 자신들이 드리는 재물을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13. 하나님을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18절의 어느 단어와 관련이 있을까?

영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는 분이란 의미다.

14.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무엇이 영원하기를 바라는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정직하고도 자원하는 마음: 18절의 '이것'은 15-17절에 나타난 생각이다.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니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마음이다. 이 마음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참으로 다윗이다!

15.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하는가?

주의 계명과 권면(법도)과 율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없다. 선물은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주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때로는 받는 사람을 섭섭하게 할 수도 있다.

16.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동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전제까지 포함해서)이다. 그것으로 끝인가?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22): 제물을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다(신 12:7, 12).

17.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었다면 이전에 그런 일이 한 번 더 있었다는 말인데?

아도니야의 반역으로 인해 급히 솔로몬을 즉위시킨 일이 있었다(왕상 1장). 역대상에서는 그 사건을 생략하고 제대로 즉위식을 치른 일만 본문에 기록하였다. 비공식적, 혹은 약식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제대로 격식을 갖추어 즉위식을 다시 치른 셈이다. 사독에게 기름 붓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 이미 사독이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새삼스럽게 여기서 다시 기름을 붓는 것은 임명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8. 원래 다윗 왕에게는 두 명의 제사장이 있었다. 사독과 아비아달인데 사독에게 기름을 부었으면 아비아달은 어떻게 되나?

아비아달은 파면된 셈이다: 다윗의 도피 생활 중 고락을 같이 했고(삼상 22장)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다윗에게 충성을 다 했지만 아도니야의 왕위 계승 음모를 지지했다가(왕상 1:7, 19, 25) 제사장직에서 쫓겨나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당하였다(왕상 2:26, 27). 결과적으로 사무엘상 2:31-35의 예언대로 엘리와 아히마스의 손은 제사장 직분에서 사라져 버렸다.

19. 다윗이 쫓겨 다니던 시절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란 표현은 조롱과 멸시의 의미였다(삼상 20:27, 25:10). 여기서의 어떤 의미일까?

명예로운 표현이다: 심지어 이사야는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의미로 쓴다(사 11:1, 10).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삶을 산 결과 조롱과 멸시조차 명예로운 이름으로 바꾸어 버린 셈이다.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꼭 그랬다.